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성편견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Internet News Reading Instruction Applying Hypocrisy Induction in the Social Studies on Gender Bias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송 미 리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정보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적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적 미디어는 익명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며, 이 특징으로 인해 각 개인의 관점보다는 집단의 관점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고, 이 편견이 심화될 경우에는 집단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회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학교가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 속에 학생들이 상호작용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행동 변화의 기초가 되는 인지적·정서적 측면의 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것이니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아가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적 설득만으로 한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육적 시도를 통해 한 사람의 내부에서 자기 설득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면,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자기 설득을 통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심리학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위선 유도' 전략을 적용한 수업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수업 내용 구성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적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 최근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성편견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여러 미디어 중 인터넷 뉴스를 수업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넷 뉴스의 경우 종이 신문과는 다르게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인터넷 뉴스는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표출되어 편견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과 교육에서는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문을 수업자료로 활발히 이용해오

고 있으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뉴스를 다루는 데에는 소홀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성편견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성편견을 감소시키고 성평등 행동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 가설 1.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 가설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 가설 3.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성평등 행동의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5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을 처치하고 사전·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중 최종적으로 369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성편견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위선을 처치한 수업이 처치하지 않은 수업보다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위의 연구 가설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통제 집단은 위선이 유도되지 않았지만 처치 집단과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편견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프라이밍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업 후 진행된 사후 성편견 조사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되지 못하여, 위선 유도의 효과와 프라이밍 효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선행 연구(Aronson, Fried, & Stone, 1991)에서도 실험 직후 설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3개월 후 추적 조사를 하였을 때는 위선 유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한 위선 유도를 활

용한 수업의 효과를 향후 추적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천장 효과는 독립 변인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 측정 도구 자체의 점수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혹은 검사가 너무 쉬운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를 변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실행한 성평등 행동의도 검사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척도가 1~4점 사이로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문항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차리기 쉬웠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기대하는 응답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이후 측정 도구를 개선하여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 변인인 수업 처치 이외에, 통제 변인 중 하나인 성별에 따라 수업 전은 물론 수업 후에도 성편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높은 경우 성평등 행동의도가 일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성정체성에 따라 성편견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연구를 통해 보고자 한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음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편견 감소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둘째, 위선 유도라는 인지적 처치를 교육의 범주로 가지고와 수업을 구성하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수업 자료로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선 유도 효과와 프라이밍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세밀하게 연구를 설계하고, 엄밀하게 성편견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위선 유도, 성편견, 인터넷 뉴스, 양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평등 행동의도

학번 : 2015-21576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 문제 ····· 4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5

Ⅱ. 이론적 배경 ····· 7
1.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과 성편견 ····· 7
1) 편견의 개념과 원인 ····· 7
2) 성편견의 개념과 유형 ····· 14
3) 성편견적 미디어 환경 ····· 18
2. 인지부조화와 위선 유도 ····· 21
1) 인지부조화 이론 ····· 22
2) 인지부조화의 한 유형으로서의 위선 ····· 22
3) 위선 유도의 효과 ····· 24
3. 위선 유도와 성편견 ····· 26
1) 위선 유도의 성편견 감소 효과 ····· 26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수업의 성편견 감소 가능성 ····· 28
4. 선행 연구 검토 ····· 30
1) 성편견 관련 선행 연구 ····· 30
2) 위선 유도 관련 선행 연구 ····· 34

Ⅲ. 연구 설계 ····· 41
1. 연구 가설 ····· 41
2. 연구 대상 ····· 43
3.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 45

1) 종속 변인 : 성편견 ····· 46
2) 독립 변인 : 위선 유도 처치 수업 ····· 48
3) 통제 변인 ····· 49
4. 연구 절차 ····· 51
1) 연구 집단 설계 ····· 51
2) 수업 처치 절차 ····· 51
5. 분석 방법 ····· 53

Ⅳ. 분석 결과 ····· 55
1. 수업을 통한 성편견의 변화 양상 ····· 55
2. 성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7
1)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 58
2)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 64
3) 성평등 행동의도 ····· 71

Ⅴ. 결론 및 제언 ····· 74
1. 논의 및 결론 ····· 74
2. 제언 ····· 77

참고문헌 ····· 79
부록 ····· 87
<부록 1> 사전 설문지 ····· 87
<부록 2> 사후 설문지 ····· 92
<부록 3> 수업 지도안 ····· 97
<부록 4> 수업 읽기자료 ····· 101
<부록 5> 학습지 ····· 105
Abstract ····· 109

표 목 차

<표Ⅱ-1> 위선 처치의 2×2 요인 설계 ····· 23
<표Ⅱ-2> 수업에 적용할 위선 유도 처치 ····· 29
<표Ⅱ-3> 위선 유도 관련 선행 연구의 상기와 공언 처치 방법 ····· 39
<표Ⅲ-1> 연구 대상의 배경정보 ····· 44
<표Ⅲ-2> 분석 모형 ····· 45
<표Ⅲ-3>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문항 번호 ····· 46
<표Ⅲ-4> 성평등 행동의도 척도의 문항 번호 ····· 48
<표Ⅲ-5> 연구 집단 설계 ····· 51
<표Ⅲ-6> 위선 유도 활용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설계 ····· 52
<표Ⅳ-1> 집단별 사전-사후 종속 변인 평균 ····· 55
<표Ⅳ-2> 연구 독립 변인 간 상관관계 ····· 57
<표Ⅳ-3>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58
<표Ⅳ-4> 적대적 부성주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60
<표Ⅳ-5> 적대적 성역할분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62
<표Ⅳ-6> 적대적 이성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63
<표Ⅳ-7>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65
<표Ⅳ-8> 온정적 부성주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67
<표Ⅳ-9> 온정적 성역할분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69
<표Ⅳ-10> 온정적 이성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70
<표Ⅳ-11> 성평등 행동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72

Ⅰ.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식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이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촉진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온전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여 보여준다는 점을 간과하며, 미디어가 특정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집단의 관점에서 사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집단 갈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적인 행동들이 더 우려되는 것은 변화한 환경의 특성과 새롭게 적용될 규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회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은 개개인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학교는 상호작용적 미디어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집단 갈등 양상과 그 이면의 편견에 대해 주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데에 기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기반을 두고 진행한다.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동 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태도는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것으로 변화가 어려우며,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행동 변화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즉, 행동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단순한 교육적 설득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우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자기 설득을 통해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심리학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위선 유도'를 적용한 수업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위선의 감정은 인지부조화의 한 형태로,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형성하고 있는 태도와 자신의 행동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도록 할 때 발생한다. 다양한 연구들은 위선의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설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설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선 유도'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그 교육적 효과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설득 보다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연구하면서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교육(차경수·모경환, 2008, pp. 15-16)에서도 의미 있을 것이다.

위선 유도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미디어와 그 속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최근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성과 관련한 편견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담은 의견 및 비하 표현 그리고 혐오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동시에 여성 차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의견 및 비하 표현과 혐오의 정

서 역시 급격하게 표출되고 있다. 상호작용적 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성별 집단을 여러 비속한 표현을 활용하여 지칭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 2015).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들과 연결되는 경우 대립의 양상은 더욱 격렬하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이 다른 문제에도 과잉 일반화 되어 적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적대적인 경향뿐만 아니라 온정적인 편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부드럽다는 식의 우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편견 역시 개인적인 차이를 무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성편견이 발현되는 여러 미디어 중에서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과 편향된 가치 판단이 공존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과교육에서는 사회 참여적 시민교육을 위해 신문기사를 학습 자료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의 경우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지면서 기사뿐만 아니라 기사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견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 수업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뉴스를 수업자료로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이니 만큼 단순히 신문기사만 보기 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표출하는 의견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구성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을 통해 중학생들이 기존에 형성하고 있는 성편견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도록 한다. 나아가 성편견적인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할 것이다. 성편견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성역할 기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이 때문에 성편견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성편견적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성편견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편견적 사고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성편견적 요소가 많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성편견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의 일방적인 설득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성편견에 대해 경계하고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주체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성편견적 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향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성편견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선 유도라는 심리적 처치를 통해 성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 과정에서 우선 학생들이 자신의 성편견에 대해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을 상기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와 댓글에서 성편견적 요소를 찾고, 그 표현이 어떠한 편견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뉴스 기사와 댓글의 성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설득적 공언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선이 유도 되도록 수업을 구성할 것이다. 수업의 전후에는 성차별주의 지지도 및 성평등 행동의도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여 수업의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출된 연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이다. 우선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성편견과 관련하여 두 개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 문제 1.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연구 문제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성편견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편견이 서로의 성별 집단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로 드러나는 동시에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에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의 효과를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활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측면에서의 연구 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3.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행동적 측면에서 성편견이 없는 성평등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행동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향후의 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해볼 것이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통해 상호작용적 인터넷 뉴스 읽기 환경에서 불거지고 있는 성편견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위선 유도가 가지는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이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편견 감소를 위한 수업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은 대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편견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을 통해 형성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번 형성된 편견을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가능하면 어릴 때 교육적으로 예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편견이 형성되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위선이라는 사회 인지적 처치를 교육의 범주로 가지고 와 수업안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위선 유도는 심리학 실험에서 주로 연구되는 인지적 처치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교육의 범주로 가지고 와 구체화 시킨 후 수업으로 구현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선 유도는 처치의 과정이 짧다. 이러한 특징은 교육과정 상 전달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학교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업 자료로서 인터넷 뉴스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업 구성 시 활용된 자료는 성편견을 내재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자료이다.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교과서와는 달리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편견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과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업 자료의 범위를 인터넷 뉴스로도 확장해나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소득 수준이 평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우려가 있는 학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보다 큰 범위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을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무작위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성편견의 정도를 측정하고 여러 통제 변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처치 전에 존재하는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짧은 연구 기간으로 추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성편견 감소를 위해 수업을 구성하고 위선을 처치한 결과,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위선 유도 효과와 프라이밍 효과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선행 연구와 같이 추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과 성편견

1) 편견의 개념과 원인

(1) 편견의 정의와 구성요인

편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우선 가장 협의의 정의는 편견을 집단 전체나 그 집단의 개개인에게 향한 적대감으로 본 것이다(Ackerman & Jahoda, 1950: Allport, 1953, p. 34 에서 재인용). 이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보다 확장하여 감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Allport(1953, p. 30)는 편견을 개인이 어떤 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좋고 싫음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태도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호의나 비호의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과일반화 된 신념(belief)이다. 호의 혹은 비호의의 태도는 앞선 협의의 정의에서 제시한 정서적인 요소이다. Allport(1953, p.34)는 이러한 정서적인 요소를 넘어 신념(belief)이라고 칭한 인지적 요소를 함께 편견의 요소로 보았다. 덧붙여 인지적 요소인 신념(belief)은 합리적 설득을 통해 어느 정도 변화 가능하지만 정서적 요소인 호의 혹은 비호의의 태도는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다고 하였다(Allport, 1953, p. 35).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편견의 정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Aronson, Wilson, Akert와 Sommers(2015, pp. 414-426)는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여 편견의 개념을 바라본다. Aronson 등(2015, p. 414)은 편견을 단지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 사람들에게 보이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때의 태도는 편견을 고정관념이라는 인지적 요소, 부정적 감정이라는 정의적 요소, 그리고 차별이라는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ronson 등(2015)이 제시한 개념에 따라 편견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편견을 정서적 측면에서의 적대감으로 본 Ackerman과 Jahoda의 개념은 현대적인 성편견에 적용하기 어렵다. 편견은 고정관념이라는 인지적 요인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 요인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서적으로 적대적인 편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정적인 편견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Allport(1953) 개념의 경우는, 성편견이 개개인이 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외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편견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 넓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Aronson 등(2015)이 편견을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편견은 적대적이고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온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성편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남성은 대범하고 강인하며, 여성은 섬세하고 온화하다는 생각은 개인차를 무시하고 집단 특성에 따라 보이는 태도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편견은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기 보다는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Aronson 등(2015)이 제시한 편견의 구성요인(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인)을 사용하되 편견의 정의에 있어서는 Allport(1953)의 정의로 보아 부정적 태도와 함께 긍정적 태도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견을 '어떤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보고자 한다.

이렇듯 편견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구성요인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이며, 각각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인지적 요인은 고정관념(stereotypes)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관련된 특성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집단으로 나누는 범주화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범주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 구성원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특성이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경우,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 야기될 수 있다. 즉, 고정관념을 통해 집단 전체의 특정한 속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복잡한 상황을 다루기에 적절할 수 있지만, 고정관념으로 인해 집단 내 개인들의 차이를 보지 못 한다면 이는 부적절한 것이다(Aronson et al., 2015).

두 번째로 정서적 요인은 감정(emotions)이다. 다른 집단에 대해 그 집단이라는 이유로 보이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부정적이며 심한 경우 적대적이기도 하다. 감정적 편견은 논리성이 결여되어있을 지라도 지속 될 수 있다. 또한 인지적인 요소인 고정관념에 감정적인 편견이 더해지면 훨씬 바꾸기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편견의 행동적 요인은 차별(discrimination)이다. 차별은 인지적, 정서적 편견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그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차별은 두드러지게 표출되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Derald Sue(2010)는 백인 교수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시아계 대학원생에게 다른 능력이 아닌 영어 실력을 칭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Aronson et al., 2015, p. 422 에서 재인용).

(2) 편견의 원인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편견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사회 정체성 관점(social identity perspective)으로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을 통칭한다(Turner & Reynolds, 2001, p.133). 사회 정체성 이론의 경우 집단 간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설명한다. 반면 자기 범주화 이론은 집단 간 관계 속에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심리적 중요성을 탐구한다.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은 그 집단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

과 여성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극명하게 분화되어 상보적인 관계를 추구했던 과거와는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경쟁의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편견도 있다.

따라서 편견의 원인을 구체화시켜 살펴보기 위해 사회 정체성 이론, 자기범주화 이론, 그리고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fication theory)

집단 간 편견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은 사회 정체성 이론이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기반 하여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집단에 기반 하여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Tajfel(1972)은 사회적 정체성을 "그 사람이 특정 집단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적 그리고 가치적 중요성을 느끼는지와 함께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개인의 인식(the individual's knowledge)"으로 정의하였다(Abrams & Hogg, 1988에서 재인용).

이때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은 대상을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도록 하면서, 우리 집단을 그들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두어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려 한다. 그 결과 자신의 문화, 국가, 또는 종교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나타나는데 이를 자집단 중심성(ethnocentrism)이라고 부른다(Aronson et al., 2015, p. 436).

Tajfel은 사회 정체성에 기반 한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차별에 대해 탐색하고자 최소 집단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큰 의미가 없는 사소한 기준에 의해 두 집단으로 나뉘어 졌을 때조차 내집단에 우호적이며 외집단에 차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Tajfel, 1982, pp. 24-25). 즉 개인은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향한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집단 간 행동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우리' 집단을 보다 우

호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내집단 편애(ingroup bias)가 발생하는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는 단지 외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Aronson et al., 2015, pp. 436-437). 특히 외집단을 집단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인지하게 되고 외집단 구성원의 개별적 특성 차이를 과소평가하고 동질적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외집단 차별 행동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성편견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을 특정한 남성적 특성으로, 여성을 특정한 여성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려 한다.", "남자는 나약하지 않다."와 같이 집단 특성을 규정하고 이를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정의 과정에서 성차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체성 이론은 남성에게는 적용되지만 여성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성별 자기정체성이 높을 경우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낮게 나타났다(김금미·한덕웅·한영석, 2003). 즉, 외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집단에 대한 편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두어 긍정적인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려한다는 사회정체성 이론에 부합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성별 자기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김금미·한영석, 2002). 이는 편견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 집단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이 남성 집단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긍정적인 자기정체감 형성을 위해 내집단을 외집단인 남성 집단보다 우월한 위치에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집단을 평등한 위치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체성이 발현된다. 이에 여성이 남성보다 성편견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즉,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차별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정체성 이론은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가지지 못한 두 집단 중 자원을 적게 가진 집단의 사회정체성이 수행하는 기능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 한다.

② 자기 범주화 이론

사회 정체성 이론이 인지적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서적인 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기 범주화 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이 제시되었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이 이론은 사회정체성 이론과는 달리 각 개인이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로 외집단을 차별한다는 이론적 설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 각 개인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집단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지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기초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개개인의 인지적인 자기범주화 과정의 측면에서 집단행동을 이해하는 사회인지적 기초를 제공한다. 사회적인 맥락은 태도, 감정, 행동에 있어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사회적 준거기준을 강제한다. 이러한 비교의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속성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회적 특성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특성을 가진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범주화 결과는 고정된 것은 아니다. Abrams와 Hogg(1990, p. 196)은 자기 범주화 이론이 사회적이고 역학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자기범주화의 과정은 사회적 준거기준과 불가분하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범주화의 수준을 바꾼다. 스스로를 개인의 단위로 범주화하고 지각하기도 하다가 집단 구성원과의 유사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상황이 되면 개인 수준에서 집단 수준으로 자기 범주화의 수준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지할 경우 집단 정체성이 증가하고 외집단과의 차이를 보다 크게 지각하게 된다. 이는 사회정체성 이론이 내집단에서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사회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본 것과는 다르다. 자기범주화 이론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내의 동질성과 다른 집단과의 이질성에서 사회정체성을 이끌어낸다. 즉, 단순히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내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집단 내의 차이보다 집단 간의 차이를 강하게 인지하여 스스로를 집단 내의 개인이 아닌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성별 사회정체성의 형성에도 적용된다. 한 개인이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질성을 크게 인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성별 사회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 혹은 다른 집단으로 스스로를 범주화 하게 된다.

③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은 집단 간 적대감(intergroup hostility)을 설명하는 확고히 정립된 이론들 중 하나이다(Jackson, 1993, p. 395). Muzafer Sherif를 중심으로 1953년 만들어져 정립되어온 이론으로, 집단 간 적대감이 경쟁과 같은 갈등적 목표로 인해 발생하며, 반대로 집단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목표가 있을 때는 감소한다고 설명한다.(Jackson, 1993, p. 397). 집단의 안전에 대한 위협,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점 또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제한된 자원을 놓고 집단들이 갈등하게 되면 한 집단의 자원 획득이 곧 다른 집단의 자원 상실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외집단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화되어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즉,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이 강력해지는 경우, 집단 간 적대감이 시작되는 것이다(Jackson, 1993, p. 398).

이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Sherif는 내집단 정체성의 중요성도 고려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 구성원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집단의 중요성은 각 개인이 그 집단의 규범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표현할 때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 결과 집단 간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집단 간 갈등은 집단 내의 결속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하며, 이는 차별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경제 환

경 속에서 세대 간 긴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일하는 많은 젊은이들보다 연금을 받는 노인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진다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며, 제한된 일자리로 인해 긴장이 더 심화되고 있다(North & Fiske, 2012, p. 988). 그리고 그 결과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능력이 없고, 시대에 뒤졌으며, 고집이 세고,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노력하지 않고, 무책임하며, 도전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등 서로에 대한 편견이 두드러진다.

같은 맥락에서 성편견의 문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자원의 문제와 불가분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전통 사회에서와는 달리 한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인해 남성의 일자리와 임금이 이전보다 위협받는다고 인지한다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형성될 수 있다.

2) 성편견의 개념과 유형

(1) 성편견의 개념

집단에 대한 편견은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차이 자체 때문에 편견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인지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차이를 인식하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편견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Allport(1953)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단 차이에 근거해서 자신의 적대감을 설명하고 정당화 한다고 말하는데, 이때 그 차이의 실제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편견을 논함에 있어서도 우선 성별 차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의는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성(sex) 차이로 시작된다. 남성과 여성이 유전자 자체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육체적

인 차이를 가진다는 점은 대체로 합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태도, 성격 등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생물학적 결정론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외적인 육체의 차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호르몬 분비 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성역할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oldberg(1999, pp. 53-54)의 경우, 사회는 몇몇 예외적 사례(영국 여왕 등)를 제외하고는 가부장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 때 높은 지위의 역할을 단지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역할 자체가 높은 지위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 역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그 시작은 프로이드의 성 이론으로, 프로이드는 모든 심적인 기제들이 인간의 내적 충동과 사회 규범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는 결과라고 보았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 보이는 성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상부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김병옥, 1991, p. 57). 이후 미드는 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고 성 차이가 사회 전체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성 역할 기대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이끌어나가게 된다.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자인 융은 여성은 에로스(eros)로 남성성은 로고스(logos)로 규정하여 설명하였다.(김동일, 1991, p. 78에서 재인용).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한 가지 집단의 차이만으로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Allport, 1953, p. 108). 언제나 수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별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러나 사실 태생적으로 가지는

신체적 특징 외에 어떤 남성적 특징으로도 모든 남성을 규정할 수 없으며 어떤 여성적 특징으로도 모든 여성을 규정할 수 없다. 즉, 모든 남성을 어떤 하나의 남성성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을 어떤 하나의 여성성으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생물학적 혹은 사회화된 어떤 특성을 일반화하여 남성과 여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편견을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별 특성으로 모든 남성 혹은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여 보이는 좋고 싫음의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좋고 싫음의 태도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놓고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단, 보통 '여성'을 편견의, 특히 부정적인 편견의 주 대상으로 보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논하는 경향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양한 여성 정책에 대해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군대 문제와 연결되면서 남성 또한 편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약자인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극복해야 할 편견의 문제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편견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모든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볼 것이다.

(2) 성편견의 유형

성편견과 관련하여 Glick과 Fiske(1996)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차별주의의 형태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 이론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하는데 대한 적대적 태도를 담고 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이 여성을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인 태도를 담고 있다. 여성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인지 온정적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립된 이 이론은 성별을 바꾸어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여성에 대한 태도를 남성에 대한 태도로 바꾸어 남성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인지 온정적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논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지지하는 경우 남성은 여성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이며,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지지하는 경우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힘 있는 존재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은 성차별주의가 다른 종류의 차별과는 달리 강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류의 편견이라는 것이다.

Glick과 Fiske(1996, p. 493)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양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부성주의이다. 부성주의는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듯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차별주의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지배하고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지배적 부성주의를 띄는 동시에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호적 부성주의를 띈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부성주의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낮다고 보면서, 남성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성역할분화이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성역할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성을 기준으로 하여 타인을 나와 다른 존재로 차별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성 역할분화는 경쟁적 성역할분화와 보완적 성역할분화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경쟁적 성역할분화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보아 남성이 사회 구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한다. 반면 신체적 특징에서 기인하여 남성은 출산과 같이 여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능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완적 성역할분화의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다(Glick & Fiske, 1996, p. 493).

세 번째 구성요인은 이성애로 적대적 이성애와 친밀한 이성애의 양가적 특성을 보인다. 이성애적인 사랑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평가받는다(Berscheid & Peplau, 1983; Glick & Fiske, 1996, p. 493 에서 재인용). 즉, 친밀한 이성애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이성애와 친밀한 이성애의 양가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이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이다. 남녀 관계는 긴밀하고 이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에 대해

지배권을 얻고자 남성을 유혹하여 무력화 시킨다고 보게 되면 적대적 이성애가 나타난다(Glick & Fiske, 1996, pp. 493-494).

성편견은 이와 같은 양가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성평등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남성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지지하면서, 여성을 지키는 보호자 또는 여성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려하는 제공자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성도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거부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특권과 권력을 정당화하고 가부장적인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성평등을 방해한다(Glick & Fiske, 2001, pp. 110-111). 또 반대로 남성에게 보호의 의무와 희생의 의무를 과다하게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3) 성편견적 미디어 환경

(1) 인터넷 뉴스 환경의 성 차별성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는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가진다. 이는 뉴스 이용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텔레비전 뉴스나 종이 신문과는 달리 인터넷 뉴스는 댓글을 통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자유로우며, 접근성이 좋아 다른 보도 매체와 비교하여 읽는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나은경과 이준웅(2008, p. 36)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뉴스 사용자들 중 84.3%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댓글을 읽는다고 답하였으며, 38.6%가 한번 이상 쓴다고 답하였다.

익명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집단 간 상호작용에 있어 각 개개인의 정체성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면서 의견이 극화되고 갈등적 상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나은영, 2006). Price

(1989, pp. 197-204)는 어떤 쟁점에 대한 집단 갈등의 보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집단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를 개인의 의견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 갈등에 대한 보도의 효과는 익명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Lee(2007)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과정(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 서로의 개인적인 정보가 공유될 경우에 개인적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을 경우, 즉 익명적인 경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으며 의견의 극화가 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적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익명성이 유지될 경우 서로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일반화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으로 인해 집단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되고 이 때문에 각 집단의 의견이 극화되어 드러나는 갈등적 의사소통 경향을 보이기 쉽다.

익명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인터넷 미디어 환경 속에서 최근에는 성별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성(性)이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받고 특정 성(性)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문제는 인류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현상으로 그 역사가 깊고, 우리 사회 속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편견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Allport(1953, pp. 52-53)는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관련하여 멸시의 태도와 과일반화의 두 가지 요소가 반 여성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편견의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때의 성편견은 기존의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의견뿐만 아니라 비하, 비난, 혐오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차별 행동이 인지적 고정관념과 결합된 형태로 함께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성편견이 익명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가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출되면서, 대립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온라인 성차별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실증적으로 성차별 온라인 공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 2015). 온라인 공간을 뉴스 사이트, 커뮤니티/카페 사이트, 인터넷 방송 사이트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가장 성 차별성이 높았던 것은 인터넷 방송[1)]이었다. 분석한 149개의 인터넷 방송 중 85개의 방송(57%)에서 성차별적 발언이 나타났다. 뉴스 사이트의 성차별성 역시 심각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중 3.5%, 뉴스 영상 중 27.6%가 성차별성을 보였으며, 기사의 댓글 중 2.6%가 성차별적이었다. 이때 모니터링 한 기사와 댓글은 내용적 측면에서 성 담론과 관계가 있는 것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정치, 사회, 연예, 스포츠 4개 영역에서 조회 수가 상위 랭크된 뉴스 기사를 조사한 것이니 만큼 유의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댓글의 경우는 해당 기사의 댓글 중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 차별성을 대부분 의견과 주장의 형태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기사와는 달리 댓글의 경우는 비하와 비난(40.3%), 그리고 혐오와 폭력(17.1%)의 형태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그 심각성이 더욱 우려된다.

(2) 성편견의 학습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뉴스 기사와 댓글의 성차별성은 비교적 공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댓글의 경우 성차별적 발언이 고정관념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넘어 비하와 비난, 그리고 혐오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를 사회문제로 여기지 않고 소수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기도 한다. 물론 댓글을 읽는 것이 이미 인터넷 뉴스 읽기 경험에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댓글을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1) 이수연 등(2015)의 연구에서는 여러 인터넷 방송 중 가장 인기 있는 방송 중 하나인 아프리카 TV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나은경·이준웅, 2008, pp. 45-46). 그러나 사람들은 댓글의 내용을 통해 여론을 유추하는 경향이 있다(이은주·장윤재, 2009). 즉, 쓰는 이는 소수이지만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문광수·김슬·오세진, 2013). 이와 같이 부정적 영향력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여겨 방관해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뉴스 기사와 댓글에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특정 성별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글의 형태로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성편견이 내재해 있는 글을 보고 난 후 이를 재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익명적인 상황에서 편견이 보다 더 격렬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2. 인지부조화와 위선 유도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성편견의 문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편견은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만큼, 가정에서 영·유아기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성편견을 줄이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성편견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론으로서 인지부조화 이론에 주목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성평등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성편견을 내재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인지부조화 상황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태도 변화를 달성할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1)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Festinger(1957)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인지부조화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인지가 서로 충돌하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와 실제로 한 행동이 서로 상충할 때 발생한다. Aronson 등(2015)에 따르면, 인지부조화 상태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보존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상태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인지부조화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충하는 두 인지 요소 또는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는 기존의 인지와 불일치하는 행동을 일치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 기존의 인지를 수행한 행동에 맞추는 것, 본래 가지고 있던 인지와 수행한 행동 외의 다른 인지 요소를 추가하여 정당화 하는 것, 또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좋은 점을 확인하여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자기 확인(self-affirmation)이 있다(Aronson et al., 2015). 인간은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태도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혹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균 이상으로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Aronson et al., 2015). 이러한 인지부조화 이론을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파생되었다. 그리고 그중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행동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를 살펴본 연구가 위선 유도 연구이다.

2) 인지부조화의 한 유형으로서의 위선

Aronson, Fried와 Stone(1991)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공언한 것을 스스로는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였을 때, 인지부조화의 한 형태인 위선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위선의 감정에 주목하여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처음으로 위선 유도라는 심리적 처치를 제시하였다. 이때 위선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은 상기(mindfulness)와 공언(commitment)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상기 처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는 과거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고, 공언 처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말을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처치의 순서는 연구마다 달랐지만 이 두 처치 모두 함으로써 실험 참여자가 위선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이 두 처치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기준으로 집단을 <표 Ⅱ-1>과 같이 네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Ⅱ-1> 위선 처치의 2×2 요인 설계

		'공언' 여부	
		○	×
'상기' 여부	○	위선 유도 집단	상기만 처치한 집단
	×	공언만 처치한 집단	정보만 제공한 집단

구체적인 실험 과정에서 Aronson 등(1991)은 에이즈 예방을 목표로 콘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위선 유도를 적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변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집단을 상기 처치 여부와 공언 처치 여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중 위선을 유도한 집단은 상기와 공언을 모두 처치하였다. 과거 콘돔을 사용하는 것에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상기를 처치한 후 고등학생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설을 하도록 하고 촬영하여 공언을 처치하였다. 통제 집단 중 상기만 처치한 집단은 과거 콘돔을 사용하는 것에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한 후,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설하도록 하되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 공언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언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단,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전달되도록 연설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언만 처치한

집단은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하도록 한 후 이를 촬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게 제공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위선을 유도한 집단에서 미래의 사용의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Stone, Aronson, Crain, Winslow와 Fried(1994)는 한발 더 나아가서 콘돔을 사용할 의도를 측정하는 대신 구매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후 실제 구매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또, Dickerson, Thibodeau, Aronson과 Miller(1992)는 위선 유도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절수 행동을 보이는지를 측정하였다. 또, Stone, Weigand, Cooper, 와 Aronson(1997)도 같은 방식으로 위선 유도가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위선을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3) 위선 유도의 효과

위선 유도는 상기 처치와 공언 처치로 이루어진다. 상기 처치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겨 지지하는 입장과 상반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공언 처치는 자신이 지지하는 태도를 타인도 지지하도록 말로써 설득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상기와 공언을 함께 처치하였을 때 위선의 감정을 자극하게 된다. 자신은 지지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선 유도의 과정은 지지하는 태도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훌륭한 자기 설득을 불러일으킨다.

위선 유도는 기본적으로 대상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설득적으로 공언한, 즉 자신이 지지하는 태도와 실제 자신이 수행한 행동 사이의 인지부조화로 인해 발생한다. 그리고 위선의 감정을 느꼈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태도와 실제 행동이 불일치 할 때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상

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Aronson el al., 2015). 이 때문에 일치에 대한 선호도(PRC: Preference For Consistency)가 높을 경우 행동 변화가 더 잘 일어난다(Cécile, Jessica, Fointiat & Somat, 2014). 물론 이때의 변화는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동차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였을 때,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즉, 교통법규를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신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괜찮은 경우가 있다고 내면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선 유도 과정에 포함된 또 다른 처치인 공언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위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선호하는, 적어도 선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및 행동을 타인에게 말한다. 이 때문에 개인이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일치시켜야 할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물론 Fried(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활용 행동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재활용 행동을 하는 대신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평가하게 되어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선 유도 시 공언을 개인 연설로 하기 보다는 집합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Fointiat, 2008)를 통해 공언의 방법을 달리하면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구성요인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자기 설득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설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설득보다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다. 이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기 설득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위선 유도를 활용하여 특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위선 유도와 성편견

1) 위선 유도의 편견 감소 효과

편견은 인지적 고정관념과 정서적인 태도, 그리고 차별적인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태도이다. 편견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선 유도를 통해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위선 유도를 통한 편견 감소의 효과는 Son Hing, Li, 와 Zanna의 연구(2001)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Son Hing 등(2001)은 혐오적 인종차별주의(aversive racism)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혐오적 인종차별주의(aversive racism)는 Dovidio와 Gaertner(1986)가 처음 제시한 인종차별주의의 한 형태로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소수 인종 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싫어하며, 차별하는 특성을 보이는 양면적인 태도이다. 이에 Son Hing 등(2002)은 혐오적 인종차별주의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위선 유도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적 인종 편견이 감소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우선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사전 인종 편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 한 후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차별적 행동의 정도를 보았다. 그 결과 위선을 유도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적은 차별 행동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Andrew(2004)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흑인과 백인 지원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위선을 유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흑인에 대한 평가 결과와 백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인종 편견과 성편견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남녀 모두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평등의식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편견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의 성차별주의를 혐오적 성차별주의(aversive sexism)라고 부르기도 한다(Ramirez & Wolfram Cox, 2006). 이는 여성의 권리

를 존중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차별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앞선 혐오적 인종차별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의 경우 소수 인종의 인권을 인정하면서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지부조화 상태를 보였다. 성편견에서도 성별과 상관없이 인권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의 우월성을 침범하는데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지부조화 상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부조화 상황을 상기를 통해 자각하도록 하고, 성편견을 지양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공언하도록 하여 위선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위선 유도를 통해 성편견을 극복하고 성평등적 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편견은 인종 편견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드러난다.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적대적인 편견을 내재하는 양면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편견 자체가 적대적이면서 온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지지하면서 이를 침범하는 여성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보이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과 차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라고 한다(Glick & Fiske, 1996). 이에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적대적인 편견을 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여성을 남성이 보호해야한다는 온정적인 편견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위선이 도출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업에서 위선 유도를 통해 인지부조화를 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편견을 감소시키고 성평등적인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설득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수업의 성편견 감소 가능성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수업은 크게 네 개의 단계로 진행되며 <표 Ⅱ-2>와 같이 정리 된다. 우선 교육적 특성상 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적 미디어의 성차별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한다. 익명성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적 미디어에서는 개별 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별의 특성으로 과잉 일반화하고, 그 특성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의 정서를 내비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기본적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 후, 사례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편견을 돌아보게 된다. 성편견적인 내용에 대해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를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고, 그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편견을 기술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편견을 상기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반성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성편견을 내재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와 댓글을 읽고 문제가 되는 표현을 찾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여러 내용에 대해 성편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성편견이 배제된 텍스트를 통해 성편견의 문제점을 학습하는 상황에서와는 달리 인터넷 뉴스와 댓글이라는 텍스트를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태도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성편견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쓴이(기자 혹은 댓글 작성자)에게 성편견을 지양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득적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은 학습지가 아닌 따로 만들어진 댓글 카드에 작성하며, 이 카드를 복도 및 게시판에 전시될 것이라고 전달한다. 또, 모둠 활동에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발언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

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언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편견을 합리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화 가능성을 높인다.

<표 Ⅱ-2> 수업에 적용할 위선 유도 처치

수업 단계		내용
1	미디어의 성차별성 제시	- 상호작용적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사례를 제시한다.
2	자신의 성편견 돌아보기	- 성편견이 담긴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크다.',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안일을 아빠가 하는 것은 이상하다.'의 5개 문장에 대해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예', 그런적이 없다면 '아니오'에 응답하도록 한다. - 위의 5개 문장 외에 자신이 스스로 성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한다. * <부록4>
3	인터넷 뉴스 읽기	- 성편견을 내재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와 댓글 읽고 편견적인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 <부록4>와 <부록 5>
4	댓글 달기	- 편견적인 인터넷 신문기사와 댓글을 읽고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성편견을 지적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글을 댓글카드에 쓰도록 한다. - 앞의 활동에서 작성한 댓글카드의 내용을 모둠에서 발표하도록 하며, 이 카드는 복도 혹은 게시판에 전시될 것이라고 안내한다.

이와 같은 수업 요소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성편견적인 사람임을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성편견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인지부조화의 한 형태인 위선이 유도된다. 그리고 인지부조화가 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언한 방향으로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4. 선행 연구 검토

1) 성편견 수업 관련 선행 연구

성편견 감소를 위한 기존의 교육적 접근은 교육 목표와 교육 대상의 측면에서 편중된 경향이 있다. 첫 번째로 교육 목표가 인지적 측면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개의 연구는 성편견의 인지적 측면인 성 고정관념의 감소 또는 성평등의식 고취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인지적인 고정관념 및 성평등의식은 정서적 측면에서 성별 집단에 대한 감정적 태도와 차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교육 목표이다. 그러나 결국 교육적으로 지향해야할 것은 인지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표상(2001)의 연구는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를 통해 체육수업에서 성평등적인 방향으로의 행동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이는 향후 효과적인 수업 구성에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지적 · 정서적 측면은 물론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한 수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교육 대상이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한정된다. 대개 성편견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정원·류성희, 2003; 박희연, 1999; 이주경·오연주·김혜옥, 2008; 장영희·윤향미, 1999; 황신해·김민진, 2013). 유아 대상 연구는 ‘반편견’이라는 이름 아래 성 고정관념을 교정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박희연(1999)의 연구

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와 만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활용하여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장영희와 윤향미(1999)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편견에 접근하며 편견의 종류 중 하나로 성(gender)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두 연구 모두 편견의 변화 정도를 엄밀하게 측정하지는 않았고 척도가 잘 정립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동화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이후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에는 이현숙(2000)이 유아교육에서 성편견을 포함한 다양한 편견 극복 노력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기도 하였으며, 김정원과 류성희(2003)는 성,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이전보다 엄밀하게 측정하여 문학을 활용한 반편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주경, 오연주와 김혜옥(2008)은 성평등 그림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활동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황신해와 김민진(2013)은 위인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성, 인종, 가난 등에 대한 편견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성편견 교육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화 및 그림책 등을 활용한 수업이 주를 이루어 수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성편견이 유아기부터 다양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고민을 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읽고 쓰는 능력을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구상인 만큼 동화와 위인전 등을 활용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지점이 많다.

또한 이미 유아기가 지나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편견 감소 혹은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수업을 구성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성 고정관념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힌 연구는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성차별이 초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인 연구(구정화, 2006), 학년과 성별에 따라 초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차이가 있음을 보인 연구(구정화, 2009), 그리고 성별 자체와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적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를 보인 연구(어윤경, 2008) 등이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서정임과 박명숙(2007)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학교 1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6편의 영화(피아노, 체인지 등)를 보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 차시 당 2시간씩 8차시의 수업을 진행한 결과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성고정관념이 유의미하게 완화되었다. 다만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의 성별에 있어 편중이 있었다. 연구자는 영화 관람이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 여학생의 참여가 많았다고 기술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성고정관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표상(2001)은 성평등체육수업전략을 적용하여 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성평등 인식 및 행동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방법인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 체육수업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지녔던 여학생들이 잠재적 능력인식이 높아졌고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편견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접근은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성편견이 유아기부터 형성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착화 되어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몇몇 연구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성을 중심으로 한 교양과학 수업,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성 관련 강좌,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진행하였을 때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신주옥·장수철·성정희, 2016; 이규은·김남선, 2003; 이성흠, 2010).

이와 같이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편견 감소 또는 성평등 교육

의 효과를 보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다. 이미 고착화된 성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성편견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고착화가 진행되어 있다고 해도 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국가교육과정 이외에 다른 교육적 내용 및 방법을 고민하고 진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교과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성편견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다양한 수업 내용 및 방법을 구상하고 적용할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등학교 학생보다 더 연령이 높아 성편견 감소 가능성이 낮음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한다.

이규은과 김남선(2003)의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강좌를 시행한 후 성 고정관념의 변화를 보았다. 해당 강좌는 매주 2시간씩 15주간 이루어졌으며, 성의 개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구조와 기능, 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미디어와 성문화의 탐색, 청년기와 성정체성, 성희롱 및 성매매 관련 법 등 간호학, 심리학, 법학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연구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5개 하위영역인 가정적 성 역할, 사회적 성 역할, 직업 및 외적 특성, 사회 심리적 특질, 지적 특질 중에서 직업 및 외적 특성에 관한 성 고정관념만 낮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이후에는 교육을 통한 변화의 폭이 작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성흠(2010)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하고 배포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이 성평등 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와 면대면으로 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신주옥, 장수철과 성정희(2016)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성평등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수업을 13차시로 구성하였다. 이 수업은 진화과학에 근거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연과학과 사화과학을 통합하여 성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형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진화심리학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태생적인 성차와 사회화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성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도

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성과 긍정적인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교양과학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13주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제로 교육적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수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교육과정이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난이도의 경우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차에 대한 특정 관점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합의된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차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 대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가능한 것은 대학의 교육 환경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대학에서는 교양강좌의 형태로 성편견 감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교육적 내용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적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또한 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신주옥, 장수철과 성정희(2016)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론적 관점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중등학교에서는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환경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다양한 교육적 고민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도 분명하다. 청소년기의 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변화 가능성은 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편견 수업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선 유도 관련 선행 연구

행동 변화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위선 유도의 과정은 상기와 공언을 핵심으로 한다. 두 처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상기와 공언의 처치 순서와 각각의

효과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처치 순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상기를 먼저 처치하고 공언을 처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언을 먼저 처치하고 상기를 처치한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치 순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개의 경우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다. 각각의 연구는 아래와 같다.

우선 상기를 먼저 처치하고 난후 공언을 처치한 연구들이다. Aronson 등(1991)의 연구는 위선 유도(hypocrisy induction)가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지를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한 연구이다. AIDS 예방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도록 위선 유도를 통해 대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기를 먼저 처치하였는데 상기를 처치한 집단은 과거 콘돔을 사용하는 데에 실패한 경험을 기술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 후 카메라 앞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도록 하였는데, 공언을 처치한 집단에게는 이때 촬영된 영상을 고등학생에게 보여준다고 하였고 처치하지 않은 집단에게는 리허설이라고 하였다.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다른 통제 집단들(상기만 처치한 집단과 공언만 처치한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3개월 후 조사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실험을 한 직후에는 프라이밍 효과로 인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3개월 후 추적 조사를 하였을 때는 실험 집단에게만 위선 유도 효과 작용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Dickerson 등(1992)은 위선 유도를 통해 절수 행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위선 유도를 위해서 먼저 상기를 처치하였는데, 수영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상황으로 가장하여 비누나 샴푸를 사용할 때 '항상' 물을 끄는지, '항상' 가능한 짧게 샤워를 하는지 등을 묻고 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공언을 처치하였는데, 캠퍼스 곳곳에 붙여질 "제발 물을 절약해주세요. 샤워를 짧게 해주세요. 비누를 사용하는 동안 샤워기를 꺼주세요."라고 쓰인 전단지에 두꺼운 검정색 마카펜으로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행동 변화의 측정은 수영장 샤워실에서 절수 행동을 보이는 정도로 하였으

며, 위선 유도의 효과는 상기와 공언을 모두 처치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는 유의미하게 이었지만, 상기만 처치한 집단과 공언만 처치한 집단과 비교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공언을 상기보다 먼저 처치한 연구들이다. Aronson 등(1991)의 후속 연구라고 할 수 있는 Stone 등(1994)의 연구에서는 AIDS 예방을 목적으로 콘돔 사용 행동을 높이기 위해 위선 유도를 사용하였다. 이때 공언을 먼저 처치하였는데 방법은 1991년의 연구와 동일하게 고등학생에게 보여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상기를 처치할 때는 촉구되는 콘돔 사용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경험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다만 행동 변화의 측정을 콘돔 구매 행동으로 측정하여 앞선 연구보다 더 엄밀하게 행동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위선 유도의 효과가 유의미 하였다. 앞선 Aronson 등(1991)의 연구에서는 실험 직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Stone 등(1994)의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측정 도구의 차이로 이해해 볼 수 있다. Aronson 등(1991)의 연구에서는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대신 미래의 구매의도를 물어보았고, Stone 등(1994)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구매 행동을 측정하였다. 미래의 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구매 행동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실험과정에서 프라이밍 된 '정답'을 답할 수 있었다. Stone 등(1994)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보였던 측정의 한계를 일부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3개월 후 실시된 추적 조사에서도 유지되었다.

Stone 등(1997)은 위선 유도로 인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worth)을 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행동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인지부조화로 인한 위선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면 과거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도한 행동 변화의 방향 외의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즉 인지부조화를 해결할 다른 간접적인 대안이 존재할 때에도 행동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노숙자를 위한 기부 행동을 촉진하고자 공언을 먼저 처치하

여 설득적 연설 영상을 촬영하였고, 자신이 과거 여유시간에 참여했던 단체들의 유형을 적도록 하여 노숙자들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후 행동측정에 있어서 노숙자를 위한 기부를 통해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는 행동만을 선택지로 제시했을 때와 관련이 적은 다른 긍정적인 선택지(콘돔 구매 행동)만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둘 다 제시했을 때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련이 적은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도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났다. 이와 같이 관련이 적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둘 다 제시했을 때, 기부 행동을 선택한 사람이 유의미하게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진실성을 보존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Fried(1998)의 연구에서는 재활용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위선을 유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재활용에 대해 우호적인 지지를 하도록 하는 공언을 먼저 처치한 다음 상기를 처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선 유도를 통한 행동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지부조화와 인지부조화로 인한 위선의 감정을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해소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과거의 태도를 수정하여 해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위선의 감정을 유도하여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어서 행동 변화가 아닌 과거 태도의 수정을 통한 부조화 해소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Fointiat(2004)은 위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인지부조화 해소와 관련하여 자기진실성(self-integrity)의 개념을 함께 언급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지키는 행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한 속도를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전단지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과거 제한 속도를 어긴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상기와 공언의 과정을 스스로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하여 참여한 프로그램 요소(공언과 상기)를 모두 수행한 피험자가 속도계를 차에 설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위선 유도의 효과성

이 입증되었다.

또, Fointiat(2008)는 교통 규칙 준수 행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위선 유도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지지하는 내용을 공동으로 토의하고 말하도록 하여 처치하는지, 개인적으로 쓰도록 하여 진행하는지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위선 유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공언을 공동으로 토의하도록 하여 처치하였을 때가 개인적으로 쓰도록 하여 처치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후속 연구로 Fointiat, Somat과 Grosbras(2011)의 교통 규칙 준수 행동과 관련하여 위선 유도의 결과 발생한 인지부조화 상황에 대해 오귀인 요소(작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를 추가하였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오귀인 요소를 추가하였을 시 행동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선 유도 시 인지부조화의 원인을 자신의 과거 잘못된 행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위선 유도를 통한 행동변화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때 구체적으로 위선을 유도하기 위한 상기와 공언의 방법은 아래의 <표 II-6>과 같다. 아래의 연구들을 보면 초기 위선 유도 연구에서는 상기를 먼저 처치하고 공언을 후에 처치하며, 후기 위선 유도연구에서는 공언을 먼저 처치하고 상기를 처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과거에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위선이 유도되어 행동변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었다(Hafer, 2009; Haney, 2013). 즉,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고 위선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행동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Fointiat, Morisot 과 Pakuszewski(2008)의 연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태도와 상반되는 행동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행동이 더 많이 변화하였다는 연구결과의 함의점과도 연결된다. Hafer(2009)의 연구에서 상기만으로도 위선이 유도된다고 제시된 이후 Haney(2013)은 이를 한 번 더 확인함과 동시에 상기와 공언의 처치 순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즉, 상기를 먼저 처치하는지, 공언을 먼저 처치하는지 간의 차이는

<표 Ⅱ-3> 위선 유도 관련 선행 연구의 상기와 공언 처치 방법

분류	연구	상기의 방법	공언의 방법
선 상기-후 공언	Aronson, Fried, & Stone(1991)	과거 경험에 대한 서술	타인에게 보여 줄 설득적 연설을 촬영
	Dickerson, Thibodeau, Aronson& Miller(1992)	과거 경험 여부에 대한 구두 응답	설득적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에 서명
선 공언-후 상기	Stone, Aronson, Crain, Winslow, & Fried(1994)	과거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10개)과 추가 서술	타인에게 보여 줄 설득적 연설을 촬영
	Stone, Weigand, Cooper, & Aronson(1997)	과거 경험에 대한 서술	타인에게 보여 줄 설득적 연설을 촬영
	Fried(1998)	과거 경험에 대한 목록 작성	토의과정을 촬영
	Son Hing, Li, & Zanna(2001)	과거 경험에 대한 서술	설득적 글쓰기
	Andrew (2004)	과거 경험에 대한 서술	설득적 글쓰기
	Fointiat(2004)	과거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설득적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에 서명
	Fointiat(2008)	과거 경험에 대한 목록 작성	교통 규칙 준수 행동에 대한 지지를 글로 작성
			교통 규칙 준수 행동에 대한 지지를 공동으로 토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구들은 위선 유도를 통해 편견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편견과 관련하여 위선 유도를 처치한 연구 중 Son Hing 등(2001)의 연구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설득적 글쓰기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언을 처치하였고, 그 다음 편견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던 경험을 적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Andrew(200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득적 글쓰기를 통해 공언을 처치하고 이후 편견 경험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여 상기를 처치하였다.

지지하는 태도에 대해 공언을 하도록 한 후, 과거 자신의 편견 경험을 상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의 두 연구는 설득적 글쓰기가 실험 처치라는 것을 숨긴 채 그 글을 팜플렛에 싣기 위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인종 편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과거의 편견 경험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처치하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편견 감소를 위한 수업 연구에 위선 유도를 적용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실행한 것과 같이 공언과 상기가 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팜플렛 제작 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믿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적 제약 속에서 수업 연구에서는 학습활동을 통해 처치하게 된다. 그런데 공언을 먼저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태도와는 다른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을 후에 처치할 경우, 공언을 통해 지지한 교육적 내용으로 인해 스스로의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고 합리화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선 선행 연구에서 상기와 공언의 처치 순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편견 감소를 위해 상기를 먼저 처치한 후 공언을 처치하여 위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중학생의 성편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남녀 모두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평등의식을 지향하면서도 이러한 의식에 반하는 성편견을 내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성차별주의를 혐오적 성차별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Ramirez & Cox, 2006). 사람들은 바로 이 양면성을 자각하였을 때 인지부조화의 한 유형인 위선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위선의 감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수업이 성편견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성편견은 상위 개념인 편견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요인인 고정관념, 정서적 요인인 감정, 행동적 요인인 차별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개념으로 전제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만 편견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편견의 양상이 적대적이거나 온정적 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성편견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두 유형으로 이분하여 검증한다. 이는 성편견의 양상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으로 드러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Glick & Fiske, 1996). 또,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각각 부성주의, 성역할분화, 이성애의 3가지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나누어 추가 검증해볼 것이다. 나아가 위선의 감정을 유도하는 수업은 인지적 · 정서적 측면의 성편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

동적 측면에서의 성편견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행동적 측면에서의 성편견이 적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동 측정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1.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1.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적대적 부성주의를 감소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적대적 성역할분화를 감소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3.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적대적 이성애를 감소시킬 것이다.

■ 주가설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1.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온정적 부성주의를 감소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온정적 성역할분화를 감소시킬 것이다.

○ 하위가설 3.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온정적 이성애를 감소시킬 것이다.

■ 주가설 3.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은 성평등 행동의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업 연구로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의 성편견적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성편견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는 태도로 성편견 완화를 위한 수업은 모든 학교 급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위선 유도라는 수업 처치의 특성과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학생은 초등학생과는 달리 성편견이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위선 유도는 성평등적 태도와 상반되는 성편견적이었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고, 성평등적 태도를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 번 공언 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수업의 의의는 성편견적 태도를 예방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성편견적 태도를 개선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성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중등학교 학생이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르러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성 고정관념을 형성한다고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유가효, 1994).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아직 성편견적 태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위선 유도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하였다. 그러나 성편견은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되기 때문에 편견 감소 교육은 학생들이 가능하면 더 어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중학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년을 1학년으로 특정한 것은 교육과정 상의 이유이다. 3개 학년 중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상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인해 수업이 용이하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도 중학교 사회 1의 ‘8.3.2. 사회 집단의 유형’ 중 내집단과 외집단의 개념 학습 부분과 연결하여 진행하기 용이하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에게 교육과정 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한정하고

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성편견의 정도는 중학교 내에서 학년 간 차이가 크게 유의하지 않았다(장영애·김용미, 2010). 이러한 점에서 학년을 1학년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5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을 지역과 학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지역 D중학교 1학년 6개 학급의 184명, 인천지역 S중학교 1학년 4개 학급 81명과 H중학교 2개 학급 69명, 그리고 서울지역 K중학교(남중) 1학년 2개 학급 42명과 S중학교(여중) 1학년 2개 학급 69명이었다. 수업과 사전·사후 설문은 학교 및 학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6년 11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437명의 학생에게 시행되었다. 그 중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비교하기 위한 식별 정보가 누락된 설문 32개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4개를 제외하였다. 또, 처치 집단 응답자 중 위선 유도가 제대로 처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응답자 22명을 추가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9명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표 Ⅲ-1> 연구 대상의 배경정보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170	46.1
	여학생	198	53.7
학교유형	남녀공학 중학교	286	77.5
	남자중학교	23	6.2
	여자중학교	60	16.3

분석 대상 중 남학생은 170명(46.1%), 여학생은 198명(53.7%) 이었다.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86명(77.5%)로 가장 많았고 남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3명(6.2%), 여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60명(16.3%)이었다. 남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적

은 것은 1개의 학교에서만 진행한 탓도 있지만, 위선 유도를 위해 실행한 상기 처치가 다수의 남중 재학생들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성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 변인으로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성차별주의 행동의도를 설정하였다. 독립 변인은 성편견적인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에서 위선 유도의 활용 여부이다. 통제변인은 성별, 성정체성, 사회성적,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 유무이다. 연구에 활용한 분석 모형은 <표 Ⅲ-2>과 같다.

<표 Ⅲ-2> 분석 모형

<table>
<tr><th>독립 변인</th><th></th><th colspan="2">종속 변인</th></tr>
<tr><td>위선 유도 수업</td><td rowspan="7">⇨</td><td rowspan="3">성차별주의 지지도</td><td>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td></tr>
<tr><td>통제변인</td><td>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td></tr>
<tr><td>성별</td><td>성정체성</td><td>사회 성적</td><td>사회경제적 수준</td><td>어머니의 직업유무</td><td colspan="2">성차별 행동의도</td></tr>
</table>

1) 종속 변인 : 성편견

(1) 성차별주의 지지도

본 연구에서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성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할 척도는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이다(안상수·백영주·김인순·김혜숙·김진실, 2007). 이 척도는 성편견을 적대적 구성요소와 온정적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Glick & Fiske, 1996)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성편견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이 편견을 적대적인 태도로 가정 한 후 적대적 성차별주의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

<표 Ⅲ-3>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문항 번호

검사	구성요인		문항 번호	Cronbach α
사전 검사	적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부성주의	3, 20, 23, 24,	.802
		적대적 성역할분화	12, 13, 17, 21	.836
		적대적 이성애	2, 10, 11, 18	.688
	온정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부성주의	1, 4, 7, 14	.780
		온정적 성역할분화	5, 9, 15, 16	.724
		온정적 이성애	6, 8, 19, 22	.776
사후 검사	적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부성주의	11, 17, 18, 21	.885
		적대적 성역할분화	5, 9, 15, 24	.838
		적대적 이성애	3, 8, 10, 19	.792
	온정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부성주의	1, 6, 12, 20	.852
		온정적 성역할분화	4, 13, 16, 22	.773
		온정적 이성애	2, 7, 14, 23	.875

시되었다. 이 척도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적대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을 나타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때문에 적대적 성차별주의 뿐만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적절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척도를 수업 처치 전후에 활용하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의 성차별주의 지지도 문항 번호는 앞의 <표 Ⅲ-3>과 같다(<부록1> 사전 설문지와 <부록2> 사후 설문지 참조). 문항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해본 결과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2) 성평등 행동의도

위선 유도는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처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선 유도 수업이 성차별주의 지지도뿐만 아니라 성 차별 행동을 하지 않고 성평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feasibility) 측면에서, 성차별적 행동 자체를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측정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에 있어서 으로 인해, 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의 척도(김금미·한영석, 2002; 김금미 등, 2003)를 참고로 하여 변화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가정, 학교, 사회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성차별주의 지지도 척도와 일관되게 Likert 4점 척도로 구성하여 비교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때 가정, 학교, 사회의 구분은 김양희, 이수연과 김혜영(2002)의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 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김양희 등(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남녀평등의식의 구인에 대한 개념 조사 결과 생활영역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네 가지 영역을 자연스럽게 고려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때 직업생활의 경우 다른 세 영역에 비해 직접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행

동의도를 생각해보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항 번호는 <표 Ⅲ-4>와 같다(<부록1> 사전 설문지와 <부록2> 사후 설문지 참조).

<표 Ⅲ-4> 성평등 행동의도 척도의 문항 번호

검사	구성요인	문항 번호	Cronbach α
사전검사	가정	1, 7, 9, 10	.677
	학교	2, 4, 6, 11	.603
	사회	3, 5, 8, 11	.666
사후검사	가정	3, 7, 10, 11	.856
	학교	4, 5, 6, 9	.835
	사회	1, 2, 8, 12	.798

문항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해본 결과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2) 독립 변인 : 위선 유도 처치 수업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에서 위선을 유도하였는지에 대한 처치 여부이다. 전달되는 내용 요소는 동일하게 하되 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인지부조화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위선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위선 유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처치 집단에는 설득적 공언 처치와 과거 경험에 대한 상기를 처치할 것이며, 통제 집단에는 설득적 공언 처치와 과거 경험에 대한 상기 처치를 하지 않고 처치 집단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만을 학습하도록 수업을 구성할 것이다.

3) 통제 변인

독립 변인 외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성편견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성별, 성정체성,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외에 학교 환경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남녀공학 중학교 학생인지, 남자 중학교 또는 여자 중학교의 학생인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성별

성별 자체는 성편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편견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홍기원·김명소·한영석, 2003). 이 때문에 여성 혹은 남성의 한 쪽 성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는 여성이 성편견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경우 자신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편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2) 성정체성

Bem(1974)은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역할 인식이 아니라 양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성정체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남녀가 생물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성향이나 취향에 있어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양성성을 인식하는 개인은 스스로에게 어느 하나의 성적인 특성만을 강요하지 않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성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여러 후속 연구가 있었다(김금미·한영석,

2002; 김금미 등, 2003; 김금미·한영석, 2003; 홍기원 등, 2003). 김금미와 한영석(2002; 2003)은 성별사회정체성을 집단몰입, 집단자존심, 그리고 집단범주화의 세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과 함께 성정체성도 양성평등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편견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정체성을 함께 측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측정시 Bem(1974)의 척도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의 문화에 맞게 개발된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 척도를 다시 한 번 축약한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하정혜와 김현정(2016)의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3) 어머니의 직업 유무

성편견은 1차 집단인 가정에서부터 학습된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존재인 부모로부터 성편견을 사회화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자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준다(박민규, 1995; 장영애·김용미, 2010; Smith & Self, 1980). 대표적으로 박민규(1995)의 연구는 어머니의 성 역할 정체감과 양육태도는 물론 직업 유무가 자녀의 성 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직업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김소정, 2013). 즉,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나고 평등의식이 높으며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함께 조사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1) 연구 집단 설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에서 위선을 처치하는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처치 집단은 위선 유도를 활용하여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을 진행하며, 통제 집단은 위선 유도를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 뉴스 읽기를 진행한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성 차별주의 지지도와 성평등 행동의도를 통제하고자 한다.

<표 Ⅲ-5> 연구 집단 설계

집단 구분	사전검사	수업 처치	사후검사
처치 집단	O_1	X_1	O_2
통제 집단	O_1	X_2	O_2

X_1 :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X_2 : 위선 유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2) 수업 처치 절차

본 연구는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Ⅲ-6> 위선 유도 활용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설계

사전 조사		상기 처치				공언 처치		사후 조사
성편견 및 통제 변인	⇨	처치 집단	**성편견과 미디어의 성차별성**	⇨	1. 성편견 경험 객관식 체크 2. 자신의 성편견 경험 사례 상세 서술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고 성편견적인 부분을 찾는 활동**	⇨	1. 댓글 써보기 활동(개인활동) 2. 모둠활동을 통한 공유 3. (학급 게시)	⇨	성편견 및 통제 변인
		통제 집단			-			1. 댓글 써보기 활동(개인활동)		

수업 진행에 앞서 연구 대상의 성편견 정도를 사전 조사 하였다. 이때 사전 조사가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업 한 주 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편견 척도 중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를 활용한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함께 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였고, 성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의 종류, 성별, 성정체성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성편견 감소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학습 자료로는 성편견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인터넷 뉴스 기사와 그 기사의 댓글을 가공하여 사용하며(<부록4> 참고),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편견적 표현의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상기해보는 부분이다. 이때 통제 집단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의 사례만을 살펴보고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부분은 성차별적 인터넷 뉴스 기사와 댓글을 읽고 성차별적 표현을 인지한 후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설득적 글쓰기를 댓글의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글쓰기는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며 모둠 활동을 통해 공유하여 소집단에서 공언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 때 공언을 처치할 처치 집단은 활동에서 쓴 글을 친구들에게 발언하도록 한다. 이때 발언 후 학급 게시판 혹은 복도 벽 등에 전시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주지시킨다.[2] 반면 설득적

2) 연구가 진행된 5개 학교의 교사와 사전 협의 시 5개 학교 모두 전시가 가능한 환경이라고

공언을 처치하지 않는 집단은 글쓰기 활동은 동일하게 수행하되 모둠활동을 통한 공언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전시할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수업 후에는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성평등 행동의도 척도를 활용하여 성편견 정도를 사후 조사 한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수량화 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고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추론 통계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수업 처치 외에 다른 변인(성별, 성정체성, 성적,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학교 유형)을 통제할 것이다.

$$Y_i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e$$

Y_i : 사후 성편견

Y_1 : 적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부성주의, 적대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이성애)

Y_2 : 온정적 성차별주의(온정적 부성주의, 온정적 성역할분화, 온정적 이성애)

Y_3 : 성평등 행동의도

a : 상수

X_1 : 수업모형(1=처치 집단, 0=통제 집단)

X_2 : 사전 성편견(Y_1, Y_2, Y_3에 따라 각각 다른 사전 성편견 값이 들어감.)

X_3 : 성별(1=남성, 0=여성)

X_4 : 성정체성-남성성

하였으며, 4개 학교는 실제로 전시를 하였다. 1개 학교는 실제로 전시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은 전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X_5 : 성정체성-여성성

X_6 : 사회 성적

X_7 : 사회경제적 수준

X_8 : 어머니의 직업유무

X_9 : 학교유형-남중

X_{10} : 학교유형-여중

e : 오차

Ⅳ. 분석 결과

1. 수업을 통한 성편견의 변화 양상

연구 대상의 성편견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 변인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부성주의, 적대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이성애), 온정적 성차별주의(온정적 부성주의, 온정적 성역할분화, 온정적 이성애), 그리고 성평등 행동의도(가정, 학교, 사회)이다. 각각의 종속 변인에 대한 집단별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는 아래와 같다.

<표 Ⅳ-1> 집단별 사전-사후 종속 변인 평균

항목	처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1.8133	1.6146	1.6716	1.5081
적대적 부성주의	1.7457	1.5862	1.5898	1.4716
적대적 성역할분화	1.7510	1.5795	1.6443	1.4850
적대적 이성애	1.9429	1.6771	1.7809	1.5662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2.1978	1.9268	2.0729	1.7661
온정적 부성주의	1.9386	1.8014	1.8140	1.5722
온정적 성역할분화	2.7548	2.2957	2.5872	2.1409
온정적 이성애	1.9024	1.6814	1.8183	1.5833
성평등 행동의도	3.5355	3.4690	3.5599	3.5562
가정	3.6200	3.5329	3.6499	3.6443
학교	3.4610	3.4243	3.4579	3.4983
사회	3.5700	3.4500	3.6147	3.5258

수업 실행 결과 인지·정서적 측면에서의 성편견인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처치 집단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경우, 사후 점수(1.6146)가 사전 점수(1.8133)보다 약 0.2점 낮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_{(df=174)}=6.478$, p = .000). 처치 집단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경우에도 사후 점수(1.9268)가 사전 점수(2.1978)보다 약 0.27점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_{(df=174)}=8.232$, p = .000). 통제 집단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사후 점수(1.5081)가 사전점수(1.6716)보다 약 0.16점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_{(df=193)}=5.639$, p = .000).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경우 사후 점수(1.7661)가 사전 점수(2.0729)보다 약 0.31점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_{(df=193)}=10.414$, p = .000).

성평등 행동의도의 경우 성차별주의 지지도와는 다르게 높아질수록 교육적 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치 집단의 성평등 행동의도는 사후 점수(3.4690)가 사전 점수(3.535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_{(df=174)}=1.714$, p = .088). 통제 집단의 경우에도 사후 점수(3.5562)가 사전 점수(3.5599)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_{(df=193)}=.132$, p = .895).

수업을 진행한 후 성편견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성편견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오히려 통제 집단이 성편견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사전 점수 또한 처치 집단에 비해 통제 집단이 낮은 성편견 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수업 모형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성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성편견을 감소시키는 데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시행한 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독립 변인과 통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분산팽창인자(VIF) 수치를 확인하였다.

<표 Ⅳ-2> 연구 독립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수업모형	1	.773	.570	.381	.769	.029	.276	.011	.898
2. 성별(남성=1, 여성=0)	-.015	1	.624	.538	.135	.388	.888	.000	.000
3. 성체성-남성성	.030	.026	1	.000	.002	.000	.037	.613	.548
4. 성체성-여성성	.046	-.032	.619**	1	.009	.001	.139	.131	.662
5. 사회성적	.053	.055	.134**	.113*	1	.000	.174	.005	.019
6. 사회경제적수준	.114*	-.045	.234**	.178**	.302**	1	.000	.237	.000
7. 어머니직업유무	-.057	.007	-.109*	-.078	-.064	-.249**	1	.371	.002
8. 학교유형(남중=1)	-.133*	.279**	-.026	-.079	.114*	-.062	.047	1	-.114*
9. 학교유형(여중=1)	-.007	-.409**	.031	.023	.124*	.258**	-.158**	-.114*	1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표 Ⅳ-2>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5 이내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정체성-여성성'과 '사회 성적'의 상관관계는 .6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산팽창인자(VIF)가 1~2의 수치를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주가설 1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부성주의, 적대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이성애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 세 가지를 종합한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3>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334	.149		2.239	.026	
위선 유도 수업	.007	.040	.007	.179	.858	1.058
사전 적대적성차별주의	.655	.042	.649	15.554	.000***	1.375
성별(남성=1)	.136	.049	.123	2.761	.006**	1.559
성정체성-남성성	-.001	.020	-.002	-.034	.973	1.681
성정체성-여성성	.014	.020	.031	.683	.495	1.656
사회성적	-.026	.010	-.102	-2.571	.011*	1.248
사회경제적수준	.023	.016	.060	1.459	.146	1.330
어머니직업유무	-.020	.043	-.017	-.455	.650	1.091
학교유형(남중=1)	.025	.086	.011	.288	.774	1.147
학교유형(여중=1)	-.067	.061	-.045	-1.096	.274	1.342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44	.553	.541	.3737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0.935	10	6.094	43.629	.000***
잔차	49.163	352	.140		
합계	110.098	362			

* $p < .05$, ** $p < .01$, *** $p < .001$

사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인인 수업 모형 적용 여부와 함께 통제 변인으로 사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성별, 성정체성-남성성, 성정체성-여성성, 사회성적,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학교유형(남녀공학, 남중, 여중 여부)을 투입(enter)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55.3%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7, p = .858$). 따라서 주가설 1을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성별, 그리고 사회 성적이었다. 사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beta = .655, p = .000$). 즉, 사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점수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 0.655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는 여학생보다 0.136이 더 높았고, 이는 $p < .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beta = .136, p = .006$).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 성적이 1점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0.026 정도 낮게 나타났다($\beta = -.026, p = .011$).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1) 적대적 부성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하위 구성요인 중 첫 번째는 적대적 부성주의이다. 주가설 1의 하위가설 1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적대적 부성주의를 감소시킬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적대적 부성주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560	.167		3.360	.001***	
위선 유도 수업	.027	.047	.023	.571	.568	1.057
사전 적대적 부성주의	.522	.044	.551	11.966	.000***	1.424
성별(남성=1)	.209	.058	.176	3.604	.000***	1.599
성정체성-남성성	.005	.023	.010	.197	.844	1.687
성정체성-여성성	.017	.024	.035	.709	.479	1.662
사회성적	-.037	.012	-.136	-3.195	.002**	1.226
사회경제적수준	.025	.019	.059	1.320	.188	1.329
어머니직업유무	-.038	.050	-.031	-.764	.446	1.092
학교유형(남중=1)	.085	.100	.035	.851	.395	1.147
학교유형(여중=1)	-.053	.071	-.033	-.741	.459	1.34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90	.476	.461	.43463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0.353	10	6.035	31.949	.000***
잔차	66.493	352	.189		
합계	126.846	362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적대적 부성주의를 47.6%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7, p = .568$). 따라서 주가설 1의 하위가설 1을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적대적 부성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적대적 부성주의와 성별, 그리고 사회 성적이었다. 사전 적대적 부성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적대적 부성주의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beta = .522, p = .000$). 즉, 사전 적대적 부성주의 점수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적대적 부성주의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 0.522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대적 부성주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적대적 부성주의는 여학생보다 0.209가 더 높았고,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beta = .136, p = .006$).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 성적이 1점 높을수록 사후 적대적 부성주의가 0.037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beta = -.037, p = .002$).

(2) 적대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하위 구성요인 중 두 번째는 적대적 성역할분화이다. 주가설 1의 하위가설 2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적대적 성역할분화를 감소시킬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적대적 성역할분화를 44.6%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31, p = .498$). 따라서 주가설 1의 하위가설 2를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적대적 성역할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적대적 성역할분화와 성별, 그리고 사회성적이었다. 사전 적대적 성역할분화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적

<표 Ⅳ-5> 적대적 성역할분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500	.170		2.950	.003**	
위선 유도 수업	.031	.046	.027	.678	.498	1.043
사전 적대적 성역할분화	.499	.042	.537	11.969	.000***	1.279
성별(남성=1)	.204	.055	.179	3.741	.000***	1.462
성정체성-남성성	.007	.023	.017	.324	.746	1.680
성정체성-여성성	.019	.023	.041	.801	.424	1.661
사회성적	-.032	.011	-.123	-2.770	.006**	1.257
사회경제적수준	.026	.018	.066	1.444	.150	1.332
어머니직업유무	.005	.049	.004	.097	.923	1.086
학교유형(남중=1)	.012	.099	.005	.126	.900	1.150
학교유형(여중=1)	-.075	.070	-.049	-1.067	.287	1.34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68	.446	.430	.42798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51.905	10	5.191	28.338	.000***
잔차	64.474	352	.183		
합계	116.379	362			

* $p < .05$, ** $p < .01$, *** $p < .001$

대적 성역할분화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beta = .499, p = .000$). 즉, 사전 적대적 성역할분화 점수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적대적 성역할분화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 0.499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대적 성역할분화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적대적 성역할분화는 여학생보다 0.204가 더 높았고, 이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beta = .204, p = .000$).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 성적이 1점 높을수록 사후 적대적 성역할분화가 0.032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beta = -.032, p = .006$).

(3) 적대적 이성애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하위 구성요인 중 세 번째는 적대적 이성애이다. 주가설 1의 하위가설 3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적대적 이성애를 감소시킬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표 Ⅳ-6> 적대적 이성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548	.175		3.141	.002**	
위선 유도 수업	.012	.049	.010	.238	.812	1.059
사전 적대적 이성애	.595	.045	.577	13.311	.000***	1.211
성별(남성=1)	.159	.058	.131	2.756	.006**	1.463
성정체성-남성성	-.010	.024	-.021	-.410	.682	1.680
성정체성-여성성	-.004	.025	-.009	-.177	.860	1.653
사회성적	-.025	.012	-.092	-2.105	.036*	1.230
사회경제적수준	.024	.019	.056	1.238	.216	1.330
어머니직업유무	.002	.052	.001	.033	.974	1.094
학교유형(남중=1)	-.077	.104	-.031	-.734	.464	1.145
학교유형(여중=1)	-.136	.074	-.084	-1.850	.065	1.32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74	.454	.438	.45279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0.004	10	6.000	29.267	.000***
잔차	72.167	352	.205		
합계	132.171	362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적대적 이성애를 45.4%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12, p = .812$). 따라서 주가설 1의 하위가설 3을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적대적 이성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적대적 이성애와 성별, 그리고 사회 성적이었다. 사전 적대적 이성애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적대적 이성애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beta = .595, p = .000$). 즉, 사전 적대적 이성애 점수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적대적 이성애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 0.595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대적 이성애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적대적 이성애는 여학생보다 0.159 만큼 더 높았고,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beta = .159, p = .006$).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 성적이 1점 높을수록 사후 적대적 이성애가 0.025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beta = -.025, p = .036$).

2)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주가설 2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온정적 부성주의, 온정적 성역할분화, 온정적 이성애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를 종합한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

도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인인 수업 모형 적용 여부와 함께 통제 변인으로 사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성별, 성정체성-남성성, 성정체성-여성성, 사회성적,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학교유형(남녀공학, 남중, 여중 여부)을 투입(enter)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표 Ⅳ-7>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343	.163		2.107	.036	
위선 유도 수업	.068	.043	.059	1.592	.112	1.046
사전 온정적성차별주의	.722	.045	.627	16.114	.000***	1.149
성별(남성=1)	.146	.049	.127	3.003	.003**	1.350
성정체성-남성성	-.010	.021	-.023	-.494	.622	1.705
성정체성-여성성	.019	.022	.040	.866	.387	1.653
사회성적	-.038	.011	-.143	-3.569	.000***	1.224
사회경제적수준	.015	.017	.037	.888	.375	1.331
어머니직업유무	-.004	.046	-.003	-.084	.933	1.088
학교유형(남중=1)	-.010	.092	-.004	-.108	.914	1.150
학교유형(여중=1)	-.129	.066	-.083	-1.972	.049*	1.356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32	.536	.522	.39859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4.512	10	6.451	40.607	.000***
잔차	55.922	352	.159		
합계	120.435	362			

* $p < .05$, ** $p < .01$, *** $p < .001$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53.6%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68, p = .112$). 따라서 주가설 2를 기각한다. 독립 변인 이외에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성별, 사회성적, 학교유형(여중=1)이었다. 사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도 높게 나타났다($\beta = .722, p = .000$). 즉, 사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 0.722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는 여학생보다 0.146 만큼 더 높았고, 그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beta = .146, p = .003$).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 성적이 1점 높을수록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0.038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beta = -.038, p = .000$).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학교유형의 경우 여중인 경우에 남녀공학 혹은 남중인 경우 보다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0.129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였다($\beta = -.129, p = .049$).

(1) 온정적 부성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하위 구성요인 중 첫 번째는 사회과 온정적 부성주의이다. 주가설 2의 하위가설 1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온정적 부성주의를 감소시킬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온정적 부성주의를 51.5%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모형의 영향력은 유의미했다($\beta = .138, p = .007$). 위선을 처치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성편견이 0.138 높았으며, 이는 $p < .01$ 유의했다. 그러나

<표 Ⅳ-8> 온정적 부성주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308	.178		1.725	.085	
위선 유도 수업	.138	.051	.103	2.726	.007**	
사전 온정적 부성주의	.633	.042	.592	15.087	.000***	
성별(남성=1)	.206	.059	.154	3.505	.001***	
성정체성-남성성	-.005	.025	-.010	-.212	.832	
성정체성-여성성	.026	.026	.048	1.003	.317	
사회성적	-.039	.012	-.128	-3.141	.002**	
사회경제적수준	.029	.020	.062	1.440	.151	
어머니직업유무	.067	.054	.048	1.227	.221	
학교유형(남중=1)	-.114	.109	-.042	-1.044	.297	
학교유형(여중=1)	-.188	.077	-.105	-2.446	.015*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17	.515	.501	.47156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83.043	10	8.304	37.345	.000***
잔차	78.273	352	.222		
합계	161.316	362			

* $p < .05$, ** $p < .01$, *** $p < .001$

위선 유도를 활용하지 않은 수업을 진행한 통제 집단에서 온정적 부성주의가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설 2의 하위가설 2를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온정적 부성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온정적 부성주의와 성별, 사회성적, 학교유형(여중=1)이었다. 사전 온정적 부성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온정적 부성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beta = .633, p = .000$). 즉, 사전 온정적 부성주의 점수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온정적 부성주의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 0.633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온정적 부성주의는 여학생보다 0.206 만큼 더 높았고, 그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beta = .206, p = .001$).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성적이 1점 높을수록 온정적 부성주의가 0.039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beta = -.039, p = .002$).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학교유형의 경우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여중인 경우에 남녀공학 혹은 남중인 경우 보다 사후 온정적 부성주의가 0.188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였다($\beta = -.188, p = .015$).

(2) 온정적 성역할분화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하위 구성요인 중 두 번째는 온정적 성역할분화이다. 주가설 2의 하위가설 2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온정적 성역할분화를 감소시킬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온정적 성역할분화를 36.1%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모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67, p = .286$). 따라서 주가설 2의 하위가설 2를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온정적 성역할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온정적 성역할분화와 성별, 사회 성적이었다. 사전 온정적 성역할분화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온정적 성역할분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beta = .596, p = .000$). 즉, 사전 온정적 성역할분화 점수가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일수록 사후 온정적 성역할분화 점수는 0.596 정도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후 온정적 성역할분화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온정적 성역할분화

<표 Ⅳ-9> 온정적 성역할분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662	.232		2.848	.005**	
위선 유도 수업	.067	.063	.047	1.070	.286	1.045
사전 온정적 성역할분화	.596	.051	.528	11.767	.000***	1.109
성별(남성=1)	.152	.071	.105	2.154	.032*	1.315
성정체성-남성성	-.006	.031	-.011	-.193	.847	1.699
성정체성-여성성	.016	.032	.027	.491	.624	1.653
사회성적	-.054	.015	-.166	-3.546	.000***	1.204
사회경제적수준	.025	.025	.050	1.011	.313	1.342
어머니직업유무	.038	.067	.025	.570	.569	1.085
학교유형(남중=1)	.141	.135	.048	1.042	.298	1.149
학교유형(여중=1)	-.106	.098	-.055	-1.089	.277	1.39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01	.361	.343	.58386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7.691	10	6.769	19.857	.000***
잔차	119.994	352	.341		
합계	187.685	362			

* $p < .05$, ** $p < .01$, *** $p < .001$

는 여학생보다 0.152 만큼 더 높았고, 그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beta = .152, p = .032$).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 성적이 1점 높을수록 온정적 성역할분화가 0.054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beta = -.054, p = .000$).

(3) 온정적 이성애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하위 구성요인 중 세 번째는 온정적 이성애이다. 주가설 2의 하위가설 3인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온정적 이성애를 감소시킬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표 Ⅳ-10> 온정적 이성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578	.180		3.212	.001***	
위선 유도 수업	.026	.050	.020	.523	.601	1.038
사전 온정적 이성애	.669	.042	.637	16.037	.000***	1.126
성별(남성=1)	.123	.057	.094	2.152	.032*	1.352
성정체성-남성성	-.004	.025	-.009	-.174	.862	1.701
성정체성-여성성	.013	.026	.024	.507	.613	1.660
사회성적	-.028	.012	-.093	-2.246	.025*	1.232
사회경제적수준	-.003	.020	-.005	-.126	.900	1.330
어머니직업유무	-.101	.054	-.074	-1.883	.061	1.089
학교유형(남중=1)	-.121	.108	-.045	-1.123	.262	1.146
학교유형(여중=1)	-.158	.077	-.090	-2.066	.040*	1.34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12	.507	.493	.46779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79.107	10	7.911	36.151	.000***
잔차	77.026	352	.219		
합계	156.134	362			

* $p < .05$, ** $p < .01$, *** $p <.001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온정적 이성애를 50.7%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모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6, p = .601$). 따라서 주가설 2의 하위가설 3을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온정적 이성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온정적 이성애와 성별, 사회성적, 학교유형(여중=1)이었다. 사전 온정적 이성애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온정적 이성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beta = .669, p = .000$). 즉, 사전 온정적 이성애 점수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온정적 이성애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0.669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정적 이성애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온정적 부성주의는 여학생보다 0.123 만큼 더 높았고, 그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beta = .123, p = .032$).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회성적이 1점 높을수록 온정적 이성애가 0.028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했다($\beta = -.028, p = .025$).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학교유형의 경우 여중인 경우에 남녀공학 혹은 남중인 경우 보다 사후 온정적 이성애 0.158 감소하였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였다($\beta = -.158, p = .040$).

3) 성평등 행동의도

사후 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인인 수업 모형 적용 여부와 함께 통제 변인으로 사전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성별, 성정체성-남성성, 성정체성-여성성, 사회성적, 사회경제적 수

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학교유형(남녀공학, 남중, 여중 여부)을 투입(enter)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2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사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35.8%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모형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45, p = .340$). 따라서 주가설 3을 기각한다.

이외에 사후 성평등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 성평등 행동의도와 성별, 성정체성-여성성, 학교유형(남중=1)이었다. 사전 성평등 행동의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 사후 성평등 행동의도 점수가 높

<표 Ⅳ-11> 성평등 행동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856	.267		3.213	.001	
위선 유도 수업	-.045	.047	-.042	-.956	.340	1.037
사전 성평등 행동의도	.720	.066	.504	10.961	.000***	1.157
성별(남성=1)	-.182	.054	-.168	-3.349	.001***	1.377
성정체성-남성성	.001	.023	.002	.038	.969	1.688
성정체성-여성성	.050	.024	.114	2.064	.040*	1.664
사회성적	.007	.012	.027	.569	.570	1.234
사회경제적수준	-.015	.019	-.038	-.770	.442	1.336
어머니직업유무	-.021	.050	-.018	-.412	.681	1.086
학교유형(남중=1)	.272	.102	.123	2.673	.008**	1.160
학교유형(여중=1)	.037	.071	.026	.520	.604	1.327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98	.358	.340	.43900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37.797	10	3.780	19.613	.000***
잔차	67.837	352	.193		
합계	105.634	362			

* $p < .05$, ** $p < .01$, *** p <.001

게 나타났다($\beta = .720, p = .000$). 즉, 사전 성평등 행동의도 점수가 다른 연구 대상에 비해 1점 높은 연구 대상자의 사후 성평등 행동의도 점수는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 0.720 높게 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이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후 성평등 행동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남학생의 성평등 행동의도는 여학생보다 0.182 만큼 더 낮았고, 그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였다($\beta = -.182, p = .001$). 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 성평등 행동의도가 0.05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였다($\beta = .050, p = .040$).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남중인 경우가 남녀공학 혹은 여중인 경우보다 성평등 행동의도가 0.272 정도 높게 나타났다($\beta = .272, p = .008$). 이 결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논의를 전개한 후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위선 유도를 활용한 사회과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중학생들의 성편견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때 성편견은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대체한 성평등 행동의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 가설 1.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 가설 2.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 가설 3.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이 성평등 행동의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5개 학교에서 총 16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각 8개 학급을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하여 수업 처치를 진행하고 사전·사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 전후의 성편견 수준이 변화하였는지를 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후,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위선을 처치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성편견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였다. 그러나 성편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혼란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제 한 후 처치 집단의 수업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위선을 처치한 수업은 처치하지 않은 수업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 가설 1, 2, 3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이다. 통제 집단은 위선이 유도되지 않았지만 처치 집단과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즉, 성편견적인 인터넷 뉴스를 접하였으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업을 통해 들었다. 또한 성편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평등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을 개인적으로 작성해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편견이 가지는 문제점과 성평등에 대해 충분히 프라이밍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업 후 진행된 사후 성편견 조사가 학교의 상황과 연구 일정 상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되지 못하여, 위선 유도의 효과와 프라이밍 효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평등 행동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프라이밍 효과가 컸을 가능성이 있다. Aronson 등(1991)의 연구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난 직후 미래의 피임기구 구매 행동 의도를 물었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었으나 3개월 후 추적 조사를 하였을 때는 유의하였다. 따라서 향후 추적 조사를 수행하여 프라이밍 효과가 제거 된 후 위선 유도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이다. 천장 효과는 실험에서 수행이 측정 척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발생한다(Elmes, Kantowitz, & Roediger, 2012). 즉,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는 특성의 상위수준에 속한 사람들을 변별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효과는 독립 변인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 측정 도구자체의 점수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혹은 검사

가 너무 쉬운 경우에 발생한다. 독립 변인의 효과가 매우 강하거나, 측정의 상한선이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검사가 너무 쉽다면 일정수준 이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를 변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수준의 성평등 행동의도를 보였다. 즉 편견이 가장 낮아 성평등적인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4 부근에 응답이 몰려 있다. 이와 같이 성편견이 낮다고 측정될 문항에 응답이 몰린 것은 척도가 1~4점 사이로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문항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차리기 쉬웠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기대하는 응답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정답'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배웠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처치의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았던 성평등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천장 효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립 변인인 위선을 처치한 수업 방법 이외에 통제변인 중 성별이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별에 따라 성편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정체성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앞선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는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높을 경우 성평등 행동의도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모든 종속 변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성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성편견이 이미 형성된 청소년기의 학생들도 교육적 노력을 통해 조금이나마 성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처치 집단의 성편견이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두 집단에서 모두 성편견이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편견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육을 통한 성편견 감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미 형성된 성편견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학생들이 보이는 성편견의 정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지도의 경우 사회문제로 보다 많이 공론화 된 만큼 이를 성편견으로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온정적 성편견의 경우 성편견임을 인지하는 것이 적대적 성편견보다 어려워 보였다. 이는 향후 성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에서 적대적 성편견과 온정적 성편견을 구분하여, 후자를 보다 세밀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은 본래 가지고 있던 성편견에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 수업 후에도 성편견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성편견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지도, 성평등 행동의도 모두에서 일관적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보다 숙고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위선이 어느 정도로 유도 되었는지에 따라 성편견 감소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선이 처치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에 따른 성편견의 변화 정도만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위선이 처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처치되었는지 약하게 처치되었는지에 따라 성편견 감소 정도와 성평등 행동 증가 정도에 영향을 다르게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기를 처치하는 경우, 어떤 응답자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 경험을 1개만 떠올릴 수 있고 다른 응답자는 5

개 이상을 떠올릴 수도 있다. 두 경우에 위선이 처치된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더 강하게 처치된 경우 인지부조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한다. 때문에 태도 및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성편견 척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위선을 처치한 수업을 진행한 처치 집단과 위선을 처치하지 않은 통제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프라이밍 효과로 설명 가능이 가능하며, 주가설 3의 경우는 천장 효과로도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프라이밍 효과로 인해 수업 직후 시행된 사후설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치 이후 한 달 이상이 시간이 지난 후 프라이밍 효과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위선 유도의 효과를 측정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주가설 3과 관련하여 성평등 행동의도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천장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척도가 1~4점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문항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쉬웠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천장 효과의 원인 중 하나가 척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점 척도보다 더 세밀하고 문항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는 위선 유도가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성평등적인 행동 혹은 성차별적인 행동을 직접 측정 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보다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무선 표집을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수도권에서만 모집하였지만, 대한민국 전체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선 표집이 필요하다. 또, 혼란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선 할당을 하는 실험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구정화 (2006). 가정 내 성차별이 초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기전문화연구, 22**, 53-79.

구정화 (2009).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학년 및 성별 차이 연구. **사회과교육, 48**(3), 35-46.

김금미·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19.

김금미·한덕웅·한영석 (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김금미·한영석 (2003).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연구, 64**, 5-44.

김동일 (1991). 남녀차이 (3) : 사회심리학적 측면. 김동일(편). **성의 사회학** (pp. 73-102). 서울: 문음사.

김병옥 (1991). 남녀차이 (2) : 심리학적 측면. 김동일(편). **성의 사회학**(pp. 55-72). 서울: 문음사.

김소정 (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111.

김양희·이수연·김혜영 (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정원·류성희 (2003). 문학적 접근을 통한 반편견 교육이 유아의 장애, 연령, 외모, 가족구성, 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2), 95-112.

김지현·하문선·김복환·하정혜·김현정 (2016). 한국 단축형 성역할 척도 (KSRI-SF; Korean Sex Role Inventory-Short Form) 타당화 연구. **상**

담학연구, 17(1), 125-147.

나은경·이준웅 (2008). **댓글문화 연구: 온라인 뉴스 이용 양태의 변화와 담론 공중의 의미**. 한국언론재단 연구보고서.

나은영 (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1), 93-127.

문광수·김슬·오세진 (2013).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댓글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201-211.

박민규 (1995). 어머니의 성 역할 정체감과 양육태도가 여고생의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계상담, 10**(2), 41-53.

박희연 (1999). 생활동화를 이용한 반편견 교육활동 : 양성성을 중심으로. **어린이교육, 1**(1), 48-66.

서정임·박명숙 (2007).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논단, 6**(2), 105-123.

신주옥·장수철·성정희 (2016). 진화과학에 근거한 인간본성의 탐구를 통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하는 성 관점을 형성하는 교양과학수업이 대학생의 성역할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0**(3), 787-845.

안상수·백영주·김인순·김혜숙·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어윤경 (2008). 성,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적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4**(2), 131-153

유가효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15**(1). 699-712.

이규은·김남선 (2003). 성 관련 강좌 이수 전후 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과 성 태도의 변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1), 5-17.

이성흠 (2010).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유형이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8**(4), 107-133.

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 (2015).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은주·장윤재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3**(4), 50-71.

이정대·이선정·신효식 (2010).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2), 15-30.

이주경·오연주·김혜옥 (2008). 성평등 그림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문학 교육연구, 9**(1), 137-165.

이표상 (2001). 성평등체육수업전략의 적용을 통한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성평등 인식과 행동변화.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40**(1), 576-58

이현숙 (2000). 유아교육에서의 반편견 교육의 적용. **경복논총, 4**, 299-321.

장영애·김용미 (2010). 부모의 성역할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8**(2), 3-11.

장영희·윤향미 (1999). 동화를 이용한 반편견 교육의 적용. **어린이교육, 1**(1), 67-79.

차경수·모경환 (2008).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분석 보고서.

한경애 (2000).

홍기원·김명소·한영석 (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9-33.

황신해·김민진 (2013). 위인그림책 읽기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159-183.

Abrams, Dominic & Hogg Michael (1988). *Social Identifications :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 : Routledge.

Abrams, Dominic & Hogg, Michael (1990). Social identification, self-categorization and social influenc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1), 195-228.

Allport. G. W. (1953). 이원영 역 (1993). **편견의 심리**. 서울: 성원사.

Andrew Biga (2004). *Hypocrisy induction to alter selection decisions among aversive racists: Analyzing the role of external motivation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Graduate thesis and dissertation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Aronson, E., Fried, C., & Stone, J. (1991). Overcoming denial and increase in the intention to use condoms through the induction of hypocris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12), 1636-1638

Aronson, E., Wilson, T. D, Akert, R. & Sommers, S. R. (2015). *Social Psychology*. London: Pearson.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Cécile, S., Jessica, M., Fointiat, V. & Somat, A. (2014). Being hypocritical disturbs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How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ference for consistency moderate the behavioral effects of the induced-hypocrisy paradigm. *Social Influence, 9*(2), 133-148

Dickerson, C. A., Thibodeau. R, Aronson, E., & Miller, D. (1992). Using Cognitive Dissonance to Encourage Water Conserv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11), 841-854.

Dovidio. J. F. & Gaertner. S. L. (1986).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CA: Academic Press.

Elmes, David G.,Kantowitz, Barry H., & Roediger Ⅲ, Henry L. (2011). 남

종호 역 (2012). **심리학 연구방법**.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Festinger, Leon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Peterson.

Fried, Carrie B. (1988). Hypocrisy and identification with transgressions: A case of undetected dissonanc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0*(2), p.144-154

Fointiat, V. (2004). "I know what I have to do, but..... " when hyocrisy leads to behavioral change.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2*(8), 741-746.

Fointiat, V. (2008). Being together in a situation of induced hypocrisy.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3*(12), 145-153.

Fointiat, V, Morisot, V., & Pakuszewski, M. (2008). Effects of past transgressions in an induced hypocrisy paradigm. *Psycological Reports, 103*(2), 625-633.

Fointiat, V., Somat, A., & Grosbras, J. (2011). Saying, but not doing: Induced hypocrisy, trivialization, and misattribu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9*(4), 465-475.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Goldberg, S. (1999). The logic of patriarchy. *Gender Issues, 17*(3), 53-69.

Hafer, J. (2009). *The role of self-schema status in moderating cognitive dissonance.* Graduate thesis and dissertations, University of Villanova.

Haney, K. (2013). *The role of mindfulness of past transgressions within the hypocrisy paradigm.* Graduate thesis and dissertations, University of Villanova.

Jackson. J. W. (1993).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A review and evalu-

ation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The Psychological Record, 43,* 395-414.

Lee, Eun-Ju (2007). Deindividuation effects on group polariz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ublic-self-awareness, and perceived argument qu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57*(2), 385-403.

North, Michael S. & Fiske, Susan T. (198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5), 982-997.

Price. V. (1989). Social identification and public opinion: Effects of communicating group conflict. *Public Opinion, 53,* 197-224.

Ramirez. M. A & Wolfram Cox, J. (2006). Aversive sexism and emotion regulation a masculin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Proceedings, 53,* p.C1-C6.

Smith, M. D. & Self, G. D. (1980). The congruence between mother' s sex-role attitudes :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1), 105-109.

Son Hing. L. S., Li. W. & Zanna. M. P. (2001). Inducing hypocrisy to reduce prejudicial responses among aversive racis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71-78.

Stone, J., Aronson, E., Crain, L., Winslow, M. P., & Fried, C. (1994). Inducing Hypocrisy as a Means of Encouraging young Adults to Use Condo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1), 116-128.

Stone, J., Wiegand, Andrew W., Cooper, Joel., & Aronson, Elliot. (1997). When exemplification fails: Hypocrisy and the motive for self-integ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54-65.

Tajfel, Henry.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 1-39.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MA: Blackwell.

Turner. J. C. & Reynolds. K. I.(2001).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in intergroup relations : Theories, themes and controversies. In Rupert Brown & Susan. L. Gaertner(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132-152). Malden: Blackwell Publishers.

<부록 1> 사전 설문지

사전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서 사회문화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송미리입니다. 설문에 응답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을 한 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이 저의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의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숫자로만 기록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설문응답을 위해 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송미리 올림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e-mail. smrsu117@snu.ac.kr

Ⅰ.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 들어야 한다.	1	2	3	4
2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1	2	3	4
3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1	2	3	4
4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엄마가 방과 후 집에서 반겨준다면,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1	2	3	4
6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1	2	3	4
7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1	2	3	4
8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 할 것이다.	1	2	3	4
9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섬세하므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0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1	2	3	4
11	여자들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2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1	2	3	4
13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1	2	3	4
15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1	2	3	4
16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1	2	3	4
17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여성들은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	2	3	4
18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다.	1	2	3	4
19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1	2	3	4
20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1	2	3	4
21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 일을 맡기가 어렵다.	1	2	3	4
22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1	2	3	4
23	남성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1	2	3	4
24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 된다.	1	2	3	4

Ⅱ. 다음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 내의 중요한 결정은 가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1	2	3	4
2	울고 있는 남학생을 보고 “너는 남자가 되어서 왜 울고 그러니.”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회를 보아 그 친구와 남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1	2	3	4
3	데이트를 할 때 비용(돈)은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내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누어 낼 것이다.	1	2	3	4
4	“여자는 수학을 못 한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수학을 잘하는 여자에 대해 알려주는 등 편견을 깨뜨려줄 것이다.	1	2	3	4
5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에 지지하는 서명을 할 것이다.	1	2	3	4
6	내가 학급회장이 된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하며 결정권도 공정하게 나누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	1	2	3	4
7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에게도 설거지를 부탁할 것이다.	1	2	3	4
8	봉사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할 것이다.	1	2	3	4
9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집안 행사나 제사 준비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1	2	3	4
10	결혼을 하면 가사분담은 배우자와 공정하게 나누어 할 것이다.	1	2	3	4
11	모둠 활동을 할 때는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모둠원의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	1	2	3	4
12	같은 일을 하고 경력이나 업무 능력도 같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댓글 혹은 게시글을 올릴 것이다.	1	2	3	4

Ⅲ. 아래의 문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통계분석 과정에서 숫자로만 사용되는 자료로 외부로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는?
   ① 아버지만 일을 하심　　② 어머니만 일을 하심
   ③ 두 분 모두 일을 하심　　④ 두 분 모두 일을 하지 않으심.

3. 귀하의 사회 성적의 대략적인 위치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 가정의 대략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의 위치는?

하　　**중**　　**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의 핸드폰 번호 중간 자리는?
   (본 정보는 사전-사후 설문지 식별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0	1	0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2> 사후 설문지

사후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서 사회문화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송미리입니다. 설문에 응답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을 한 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이 저의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의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숫자로만 기록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설문응답을 위해 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송미리 올림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e-mail. smrsu117@snu.ac.kr

Ⅰ.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1	2	3	4
2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1	2	3	4
3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다.	1	2	3	4
4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1	2	3	4
5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여성들은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	2	3	4
6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7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 할 것이다.	1	2	3	4
8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1	2	3	4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1	2	3	4
10	여자들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1	2	3	4
11	남성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1	2	3	4
12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 들어야한다.	1	2	3	4
13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1	2	3	4
15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 일을 맡기가 어렵다.	1	2	3	4
16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섬세하므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7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1	2	3	4
18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 된다.	1	2	3	4
19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1	2	3	4
20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1	2	3	4
21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1	2	3	4
22	엄마가 방과 후 집에서 반겨준다면,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1	2	3	4
23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1	2	3	4
24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1	2	3	4

Ⅱ. 다음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같은 일을 하고 경력이나 업무 능력도 같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댓글 혹은 게시글을 올릴 것이다.	1	2	3	4
2	봉사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할 것이다.	1	2	3	4
3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집안 행사나 제사 준비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1	2	3	4
4	내가 학급회장이 된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하며 결정권도 공정하게 나누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	1	2	3	4
5	모둠 활동을 할 때는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모둠원의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	1	2	3	4
6	울고 있는 남학생을 보고 “너는 남자가 되어서 왜 울고 그러니.”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회를 보아 그 친구와 남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1	2	3	4
7	결혼을 하면 가사분담은 배우자와 공정하게 나누어 할 것이다.	1	2	3	4
8	데이트를 할 때 비용(돈)은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내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누어 낼 것이다.	1	2	3	4
9	“여자는 수학을 못 한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수학을 잘하는 여자에 대해 알려주는 등 편견을 깨뜨려줄 것이다.	1	2	3	4
10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에게도 설거지를 부탁할 것이다.	1	2	3	4
11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 내의 중요한 결정은 가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1	2	3	4
12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에 지지하는 서명을 할 것이다.	1	2	3	4

Ⅲ. 다음의 표현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숫자에 표시해봅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그렇다
1	친절하다	1	2	3	4	5	6	7
2	의욕적이다	1	2	3	4	5	6	7
3	온화하다	1	2	3	4	5	6	7
4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6	7
5	씩씩하다	1	2	3	4	5	6	7
6	박력이 있다	1	2	3	4	5	6	7
7	상냥하다	1	2	3	4	5	6	7
8	대범하다	1	2	3	4	5	6	7
9	다정다감하다	1	2	3	4	5	6	7
10	따뜻하다	1	2	3	4	5	6	7

*대범하다 : 성격이나 태도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너그럽다.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Ⅳ. 아래의 문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통계분석 과정에서 숫자로만 사용되는 자료로 외부로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핸드폰 번호 중간 자리는?
(본 정보는 사전-사후 설문지 식별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0	1	0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3> 수업 지도안

처치 집단용 위선 유도를 활용한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지도안

1. 수업 주제 : 성 편견

2. 수업 목표

(1) 성 편견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자신의 성 편견 경험을 돌아 볼 수 있다.
(3) 성 편견이 담긴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4) 성 편견이 가지는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3. 지도상의 유의점

(1) 학생들이 성 편견 경험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경험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2)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담긴 성 편견적인 표현을 찾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성 편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관점이 담긴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4. 수업 과정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도입	■ 흥미 유발 -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시작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별 대립과 성 편견의 문제를 논한다.		5	
전개	교사의 수업	■ 미디어의 성 차별성 - 익명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아래에서, 성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수업한다.		
	성편견 경험 상기	■ 상기 처치 - 자신의 성 편견 경험에 대해 5개의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며 상기하도록 한다. - 학습지에 제시된 5개 문항의 성 편견 외의 자신이 경	5	학습지

		험한 성 편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상기하도록 한다.		
	인터넷 뉴스 기사 읽기 활동	■ 인터넷 신문 읽기 활동 - 편집 및 각색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고 성 편견적인 표현을 찾아 밑줄을 긋도록 한다. - 어려운 단어 혹은 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15	읽기 자료 및 학습지
	댓글 쓰기 및 모둠 활동	■ 댓글 쓰기 활동 - 편견적 시각을 담아 기사를 쓴 기자, 혹은 댓글을 쓴 사람에게, 성 편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평등적 관점을 담은 댓글을 달아주는 쓰기 활동을 수행한다. ■ 모둠 활동 - 작성한 댓글을 모둠활동을 통해 공유한다.	15	
정리	■ 교사의 정리 - 개인과 사회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성 편견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항상 경계하며 성평등을 지향해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설명한다. ■ 전시 활동 - 활동 중 작성한 댓글 카드를 학급 게시판 혹은 복도 등에 전시한다.		5	

통제 집단용 인터넷 뉴스 읽기 수업지도안

1. 수업 주제 : 성 편견

2. 수업 목표

(1) 성 편견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성 편견 사례를 알 수 있다.
(3) 성 편견이 담긴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4) 성 편견이 가지는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3. 지도상의 유의점

(1) 학생들이 다양한 성 편견 사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2)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담긴 성 편견적인 표현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성 편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관점이 담긴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4. 수업 과정

<table>
<tr><th>단계</th><th colspan="2">교수·학습활동</th><th>시간</th><th>자료</th></tr>
<tr><td>도입</td><td colspan="2">■ 흥미 유발
-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시작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별 대립과 성 편견의 문제를 논한다.</td><td rowspan="3">5</td><td></td></tr>
<tr><td rowspan="2">전개</td><td>교사의 수업</td><td>■ 미디어의 성 차별성
- 익명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아래에서, 성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수업한다.</td><td></td></tr>
<tr><td>다양한 성편견의 사례들</td><td>■ 다양한 성 편견 사례 제시
-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크다.’,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안일을 아빠가 하는 것은 이상하다.’를 포함한 다양한 성 편견 사례를 제시한다.</td><td>5</td><td>학습지</td></tr>
</table>

	인터넷 뉴스 기사 읽기 활동	■ 인터넷 신문 읽기 활동 - 편집 및 각색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고 성 편견적인 표현을 찾아 밑줄을 긋도록 한다. - 어려운 단어 혹은 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15	읽기 자료 및 학습지
	댓글 쓰기	■ 댓글 쓰기 활동 - 편견적 시각을 담아 기사를 쓴 기자, 혹은 댓글을 쓴 사람에게, 성 편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평등적 관점을 담은 댓글을 달아주는 쓰기 활동을 수행한다.	15	
정리	■ 교사의 정리 - 개인과 사회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성 편견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항상 경계하며 성평등을 지향해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설명한다.		5	

<부록 4> 수업 읽기자료

학습 자료 인터넷 신문 기사와 댓글

"남자들이 벌여놓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여성들 나섰다"

J 신문, 2016.07.06.

영국, 테리사 메이 후보

영국, 앤드리아 레드섬 후보

여성 정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나가기로 결정한 이후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다음번 총리로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차관 등 두 여성이 부상했다.

남자들이 벌여놓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영국에서 여성들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도 새로운 여성 정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유럽의 여러 신문들은 "유럽이 비로소 안전한 사람들(여성)의 손에 맡겨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위험할 정도로 대범하고 독선적으로 정치를 이끌어온 남성들과는 다른, 안전하고 국민을 포용하는 여성의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한 의원은 "사회 전체에 '엄마, 얼른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여성은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남성처럼)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 힘을 악용하기까지 해온 부패한 남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 국민적 정서가 지금의 여성 정치 시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테리사 메이 후보는 구두 애호가로, 호피무늬, 표범무늬 등 독특

한 모양의 구두를 즐겨 신는 등 패션 감각이 좋아 정치계의 패셔니스타로 꼽힌다. 호피무늬 외에도 호랑이 가죽 무늬가 새겨진 구두, 입술 모양이 그려진 구두, 롱부츠 등을 신고 나와 눈길을 사로잡았었다. 그녀는 대체로 원칙적이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료 정치인에게 차갑고 강인하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집에는 요리책을 100권 이상 가지고 있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메이 후보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었지만, 국민 투표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나가는 여러 과정을 진행하되, 영국을 위해 최선의 조건들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앤드리아 레드섬 후보는 4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 밑에서 2명의 자매와 함께 살았으며, 1993년 결혼 하였다. 그 후 자녀가 없는 메이 후보와는 달리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레드섬 후보는 경제계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치경험은 메이 후보보다 적은 편이다. 레드섬 후보는 유럽 연합 탈퇴파로 협상을 빨리 끝내고 유럽연합을 빨리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철저한 기독교 주의, 동성결혼 반대 등 보수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 기자

학습 자료 인터넷 신문 기사와 댓글

댓글 6개

A
사람은 누구나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다. 남자가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자도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짓고, 분란을 일으키는 기사를 쓴다. 모든 남자가 쓰레기를 버려놓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자가 다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는다. 23 6

↳ a
솔직히 정치는 카리스마 있게 남자가 더 잘하지 않음? 여자 정치인들은 옷만 이쁘게 입는 듯.

↳ b
군대 다녀온 사람이 정치를 해도 해야함. 나라를 다스리려면 힘 있는 남자라야지 ㅋㅋ

↳ c
그래서 남자 정치인들은 맨날 힘만 과시함—3—?? 남자들은 지금이 구석기 시대도 아닌데 힘으로 다 누르려고 한다. 근데 사실 미필도 많지 않나?

B
이제는 저분들이 살림 냄새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15 11

↳ d
세계가 망하려고 하나보다. 여자들의 살림 냄새 나는 정치라니... 살림은 집에나 가서 해라. 왜 밖으로 나오고들 그러는지

C
근데 메이는 진짜 정치인 안 같고 중년 여자 연예인 같다. 옷이랑 구두랑 진짜 화려하게 잘 입음! 여자가 정치를 하니 눈도 즐겁고 볼거리가 늘어나는듯!? 6 5

↳ e
올 빨강으로 입은 적도 있는데, 그때 구두도 화려했음.
그래도 저 나라의 얼굴 마담인데 좀 조신하게 입어야 하는 거 아닌지ㅋㅋㅋ

D
남성은 뇌물 좋아하는데 여성이라고 뇌물 안 좋아하냐? 이런 기사 내보내는 게 성차별이다. 23 1

↳ g
조상들이 여자들 투표권 안 주고 2등 시민 취급하고 멸시 했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여성지위 높여주겠다고 여성부니 여성전용이니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여자들이 벼슬인줄알고 이렇게 남자 위로 기어오르잖아.

E
어째서 남자들이 부패했으니 대안으로 여자들이 당선된다는 논리의 제목이 나오지..?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청렴결백하면 여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당선 안 된다는 소리아냐?
5 14

F
저 나라 남자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여자 밑에서 살라니.... 진짜 무능한가보다.
12 21

↳ h
여자 밑에서 살아서 무능한게 아니라 무능해서 여자 밑에 살게된 거다. 남자들은 맨날 쌈질이나 하고,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정치하는 듯?? 옛날 옛적에는 몰라도 복잡 미묘한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남자들이 별로다. 섬세한 여자들로 바뀌는게 낫다.

[redacted]

<부록 5> 학습지(처치 집단)

인터넷 신문 읽기

1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 편견

1.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예'에, 없다면 '아니오'에 표시해봅시다. (평가를 위한 질문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해봅시다.)

no	질문	예	아니오
1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크다.		
2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다.		
3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4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5	집안일을 아빠가 하는 것은 이상하다.		

2. 위와 같은 생각 외에 성 편견적인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다양하게 적어봅시다.

-
-
-

2 인터넷 신문기사와 댓글의 성 편견적인 표현

1. 인터넷 신문기사와 댓글에서 구체적인 성 편견적인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 중 1개를 골라 어떤 성 편견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남자에 대한 편견	여자에 대한 편견
• 편견적인 부분 : • 편견의 내용 :	• 편견적인 부분 : • 편견의 내용 :

2. 신문 기자 혹은 성 편견적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댓글 카드에 적어봅시다.

<부록 5> 학습지(통제 집단)

인터넷 신문 읽기

1 다양한 성 편견의 사례

1.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다양한 성편견의 사례를 적어 봅시다.

-
-
-
-
-

2 인터넷 신문기사와 댓글의 성 편견적인 표현

1. 인터넷 신문기사와 댓글에서 구체적인 성 편견적인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 중 1개를 골라 어떤 성 편견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남자에 대한 편견	여자에 대한 편견
• 편견적인 부분 : • 편견의 내용 :	• 편견적인 부분 : • 편견의 내용 :

2. 신문 기자 혹은 성 편견적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댓글 칸에 적어봅시다.

Abstract

The Effects of Internet News Reading Instruction Applying Hypocrisy Induction in the Social Studies on Gender Bias

Miri, So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Mi-Na, Lee, Ph. D.

In contemporary society, the use of interactive media is very actively don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ose interactive media, however, are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anonymity, and for this characteristic, a group' s perspective is more distinctly shown rather than each individual' s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is, fixed ideas are formed about a certain group, and if such prejudice is more deepened, it may lead to conflict among groups. In this problematic situation, we expect that schools functioning as institutions for socialization will provide some clues for solution in educational aspects.

With this expectation, this study was going to find out educational methods to change students' problematic behavior shown in the environment of interactive media desirably. However, cognitive and emotional at-

titudes which are the basis of behavioral change cannot be easily changed since they have been established for a long period. Besides, even if some changes are shown in cognitive · emotional attitudes, it does not guarantee behavioral changes. It means that only with educational persuasion given from outside, it is hard to change an individual's attitude. But if an educational trial is done and it leads to the process of self-persuasion inside an individual, attitudinal changes may arise. Accordingly, this study was designed a instruction applying 'hypocrisy induction' strategies that are being usefully employed in psychology to induce behavioral change through self-persuasion and verified its effect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contents for the instruction, this study dealt with the matter of gender bias that is being most seriously shown in interactive media among many other issues. Also, among a variety of media the issue of gender bias is shown in, internet news was used as instruction materials. Unlike paper-based newspaper, internet news is characterized by more interactivity. Because of that, not only facts about a particular phenomenon but many people's opinions are revealed in internet news, so it tends to contain a lot of prejudicial contents. Newspaper has been positively used as instruction materials in the social studies instruction to deal with social issues; however, it has hardly dealt with internet news considering new media environment. In considering of that, this study was going to design a instruction that can reduce gender bias and improve behavior for gender equality in gender-biased media environment and verified its effects. To attain the goal, this study formulated hypotheses as below:

- Study hypothesis 1. Internet news reading instruction applying hypocrisy induction in social studies will reduce support for hostile sexism.
- Study hypothesis 2. Internet news reading instruction applying hypocrisy induction in social studies will reduce support for benevolent sexism.

■ Study hypothesis 3. Internet news reading instruction applying hypocrisy induction in social studies will improve behavioral intention for gender equality.

To verify the hypotheses above, this study provided internet news reading instruction applying hypocrisy induction in social studies to first graders attending five middle schools located in capital area and conducted pre-survey and post-survey. Among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this study used 369 respondents' for fi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treated group and control group both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gender bias; however,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struction treated with hypocrisy did not indicate any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instruction not treated with it. Through that, the above hypotheses are all rejected.

The results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t may be because of priming effect. Although the control group was not induced to hypocrisy, they were provided with the same information as what was given to the treated group. In this process, priming was fully done about problems in gender bias and gender equality. But the post-survey on gender bias conducted after instruction was not done with an enough interval, so the effect of hypocrisy induction was not distinguished from priming effect. Advanced research (Aronson, Fried, & Stone, 1991), in fact, showed that the effect of hypocrisy induction was not shown in the survey right after the experiment but was shown in the follow-up survey after three months. Therefore, the effects of instruction using hypocrisy induction intended to examine in this study may be checked with the follow-up survey afterwards.

Second, ceiling effect may have arisen. Ceiling effect takes place when an independent variable exhibits too high effects, the measuring tool's

range of points is very limited, or the test is too easy. In such cases, those belonging to a higher level cannot be distinguished. In the test on behavioral intention for gender equality conducted to verify Hypothesis 3, most of the participants indicated high behavioral intention for gender equality. This may be because the scale was limited from 1 to 4 and what was meant to be asked was so easy to notice and they gave answers that were educationally expected.

Aside from the instruction treatment, the independent variable, sex, one of the control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bias both before and after the instruction. This conforms to the result of advanced research. Ye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whether the mother had a job. Moreover, when they indicated great sexual identity as a woman, behavioral intention for gender equality was shown high in som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bias according to sexual identity in general.

The results above show that the major effects intended to examine in this study are not significant. But this study can giv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education to reduce gender bias can be provided to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cognitive treatment of hypocrisy induction can be applied as a category of education and designed for a instruction. Third, it provides the possibility that internet news can be used effectively as instruction materials.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follow-up research will be done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effects of hypocrisy induction and priming effects for more precise research design and using a scale that can measure gender bias more closely.

Key words : hypocrisy induction, gender bias, internet news,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behavioral intention for gender equality.

Student Number : 2015-21576